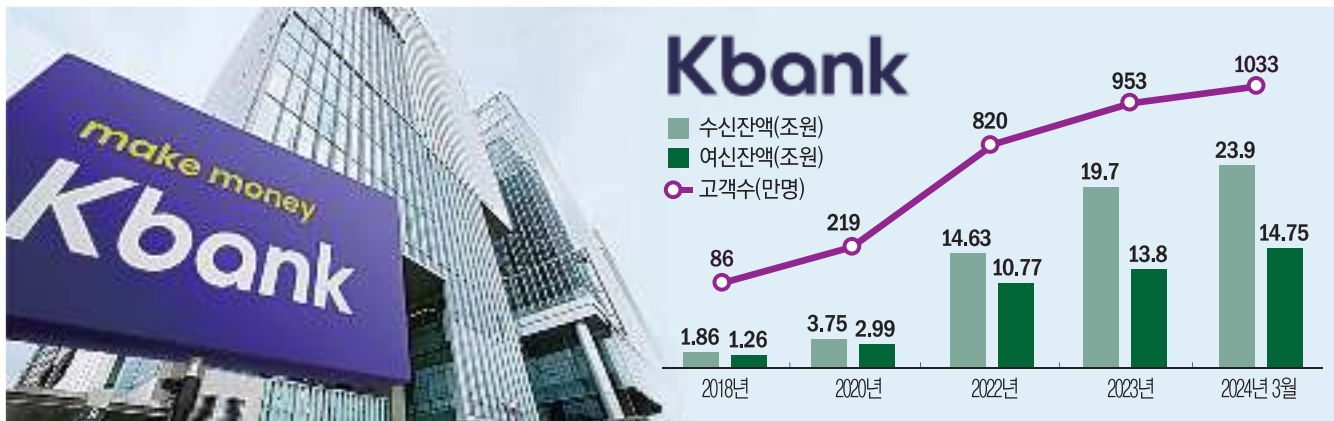


▶22면에 계속
허지은 기자 hje@

1000만 고객 업은 '케뱅크'... 연내 IPO로 '만형 입지' 다진다

③ '핀테크 선두주자' 케이뱅크

'無점포 1호' 인터넷은행 선봉
압도적 기술력, 경쟁 아닌 혁신
7년 만에 '1000만 고객 돌파'
최우형號 연내 기업공개 추진
상장 성공 땀 시장 판도 전환점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2017년 4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했다. 평화은행 이후 무려 25년 만에 등장한 은행이었다. 하지만 케이뱅크를 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디지털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동시에 세상에 없던 최초의 인터넷은행은 위협적인 경쟁자였다.

치열한 경쟁은 혁신을 예고했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는 1년 반 동안의 어렵고 힘든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라며 탄생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은행권에 불려온 후폭풍은 생각보다

더 거셌다.

가격 메리트, 이용 편의성 등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한 1호 케이뱅크의 성과로 인해 현재 인터넷은행 시장은 제4의 플레이어 참여까지 앞두고 있다. 올해 목표로 하는 기업공개(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현재보다 몸집도 2배 가까이 커지고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케이뱅크의 고객은 1033만 명이다. 출범 7년 만인 올해 2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말 717만 명, 2022년 말 820만 명에서 지난해 말 953만 명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3월 1000만 명을 가뿐히

넘겼다. 특히 올해 들어 일 평균 신규가입 속도가 지난해보다 3배가 빠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1000만 고객의 의미는 크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에 고객 수는 곧 수익을 의미한다.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고객을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통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과감한 금리 전략을 내세웠다. 시중은행은 시도할 수 없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놨다. 2월 1일부터 신규 고객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 예정이었던 '코드K 자유적금'

특판은 '오픈런' 열풍을 일으키며 하루만에 마감됐다. 시간당 400여 명의 신규 고객이 가입한 셈이다. 6개월 만기 연 10% 금리에 고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체 은행권에서 내놓은 한정판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았다.

경쟁력 있는 금리는 고객 혜택으로 이어졌다. 2020년 8월 출시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약 1만 2000명의 고객이 이자 총 166억 원을 탔었다. 1인당 연 평균 이자 절감액은 140만 원으로 매년 갤럭시S24 한 대를 무료로 받은 격이다.

점포 없는 1호 디지털 은행 케이뱅크는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인공

지능(AI) 등 압도적인 디지털기술로 금융권의 '혁신'을 가져왔다.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통장묵기 즉시 해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보통 계좌지급정지 해제에 두 달이 걸리는데 케이뱅크는 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AI, 빅데이터로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해 역을 한 사례라고 판단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내 추진 중인 IPO는 케이뱅크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1월 새롭게 수장이 된 최우형은 행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케이뱅크는 최 행장 취임 후인 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연내 IPO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지난해 2월 IPO를 중단한 지 약 1년 만의 재도전이다. 케이뱅크는 예비심사 통과 효력이 만료돼 다시 상장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2022년 9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2월 돌연 상장계획을 철회했다.

최 행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고객을 향해 또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IPO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고객니즈 파악한 '돈나무 키우기'... 모두 함께 무럭무럭"

인터뷰

홍민수 케이뱅크 PM 매니저

"케이뱅크 고객에게 더 많은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자"가 팀의 목표예요. 전통적인 금융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이용경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에서 신규 서비스 기획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민수(사진) 매니저가 꼽은 자사의 혁신 비결이다.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케이뱅크 본사에서 만난 홍 매니저는 "항상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일상이 됐다"면서 "이는 결국 고객에게 새롭고 나은 가치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1호 인터넷은행의 상품 개발자로서 그간의 부담이 상당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는 "케이뱅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서비스로 기획하며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주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며 고



사진제공 케이뱅크

객 반응을 직접 느끼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 일의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선보인 '돈나무 키우기'도 그의 머릿에서 나왔다. 돈나무 키우기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 안의 임무 수행을 게임처럼 즐기고 현금 보상 혜택을 받는 서비스다. 게임을 통해 케이뱅크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초 기획 목적이다. 이 덕분에 출시 3주 동안 케이뱅크의 앱 페이지 방문 수가 기존 대비 60%가량 늘었다. 이용자 수도 60만 명을 돌파했다.

홍 매니저는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

는 '생활 속의 은행'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마냥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소통 문제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는 "서비스 운영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며 "새로운 사람들과 시스템에 적응하며 업무를 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끊임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는 홍 매니저는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만큼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원 기자 jsw@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급 R&D 예산, 기초연구·차세대기술·인력양성 초점

정부 “연내 개혁 마무리”

정부출연연 칸막이 없애 효율화
과학특성화대 혁신계획 등 수립
출연연 ‘인위적 통제합’은 부인
우주항공청 다음달 27일 출범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책정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전원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 후폭풍이 거세지자 재빨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 “환영

한다”면서도 “지난해 어려운 결정을 한만큼 후속 예산에 교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 R&D 예산 편성은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기초를 유지하고 기초원천 연구와 공공이 맡아야 할 차세대 기술, 젊은 연구자 양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의 효율성 데이터 등을 분석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재정 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 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G3 도약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집중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다운 R&D로의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 현장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특성화대 혁신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출연연 칸막이를 없애고 총인건비와 인재 채용 절차, 예산 자율성, 조정 기준,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해 연구효율성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단, 출연연 통제합 논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통합에 대해 현장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합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R&D 예산안 수립하고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대 혁신, 국제협력, 민관협

력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활성화 △출연연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 강화 △글로벌 R&D 협력 △과학기술 분야 민관 협력 등 5대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내달 27일 출범하지만 이때까지 모든 조직 구조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주항공청 출범 후 국가적 임무로 수행해야 할 후보 과제가 405개 정도 제안됐다. 사전 준비와 향후 임명될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비전과 철학이 묻어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대 편중 완화를 위한 처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 우수 인재가 의대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의사와 과학자가 양성돼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과학인재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민간과 함께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2차 소부장 특화단지

※ 2023년 7월 지정, 현재 6.7조원 기업투자
2024~2028년 총 5067억원 정부 지원 예정

바이오 오송

LG화학, 대웅제약 등
현재 1.6조원 투자

자동차 부품 광주

LG이노텍, 기아, GGM 등
현재 1.9조원 투자

반도체 장비 안성

케이씨텍, 미코세라믹스 등
현재 0.9조원 투자

전기차 모터 대구

성림첨단산업, 경창산업 등
현재 1.5조원 투자

전력반도체 부산

SK파워텍 등
현재 0.8조원 투자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기술에 항공·방산·수소 포함 특화단지 5곳 5년간 5000억원 지원

정부, 소부장 전략기술 50개 추가
기업·고객 간 협력개발도 돕기로

정부가 추가로 선정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7개 분야 150개이던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은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가 추가되면서 모두 200개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 추가로 지정된 5곳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5067억 원 규모의 지원을하기로 결정했다. 소부장 특화단지 주도 기업들이 6조7000억 원의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각각 2318억 원과 2228억 원을 투입한다. 인력 양성과 관련한 펀드 운영에도 80억 원, 21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대폭 확대 지정됐다. 정부는 출자·인수 세액 공제, 지역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핵심 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

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은 당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50개였으나, 이번에 우주·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대 분야 40개를 포함해 50개가 추가돼 총 200개로 늘었다. 우주·항공분야에서는 우주발사체, 항공기 경량화, 무인기 자율 부품 기술 등이, 방산 분야에서는 다기능 반도체 패키징, 전장용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이 각각 포함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시장 확대 전망을 반영해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대량 생산 공정 장비, 3D 바이오프린팅 소재 및 장비 등 14개 기술이 추가돼 대상 기술이 총 19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7건의 ‘소부장 협력 모델’을 추가로 선정했다. 소부장 공급 기업과 고객사 간의 특정제품 개발 협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사용자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생분해성 합성섬유 등 7건을 지정해 향후 관련 제품 개발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첨단산업 주도권은 더 이상 개별기업 간 대결이 아니라 ‘클러스터 간 산업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시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조)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NH투자증권

“文케어로 20조 날려… 의료개혁,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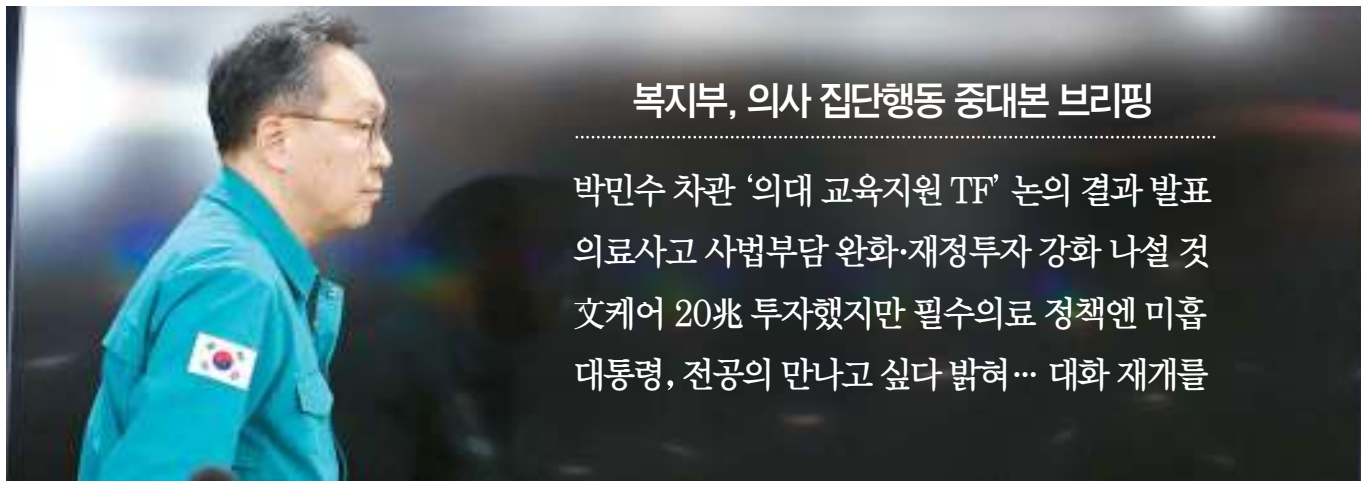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차관은 “정부는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 재정 투자 강화에 조속히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박민수 차관 ‘의대 교육지원 TF’ 논의 결과 발표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재정투자 강화 나설 것
文케어 20兆 투자했지만 필수의료 정책엔 미흡
대통령, 전공의 만나고 싶다 밝혀… 대화 재개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날 공주의료원 방문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외에 민사소송 부담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재정투자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 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수준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해서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해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의료전달 체계에 따라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게는 다시 한번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차관은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금융감독원장〉

‘양문석 의혹’ 입 펜 이복현 “명백한 불법대출”



제22대 총선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검사 착수와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날 오전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면서 “합법이나 불법이나 둘 중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와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감사에 지원인력 5명으로 이뤄진 검사반을 파견했다.

전날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 검사역 파견을 제안했다.

이원장은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해 제안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

금감원, 새마을금고 검사

梁 주택구입 편법대출 의혹에 “나로 인해 피해자 있나” 반박

李 “자영업자 살릴 돈 가로챈 것 선거 부담스럽지만 원칙조사”

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공급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원장은 양 후보의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항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섰던 이른바 ‘작업 대출’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땅 짚고 헤매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팀을 꾸려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했다”고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효성티앤씨가 베트남에 1조 원을 들여 바이오BDO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왼쪽부터 전용하 베트남 부총리와 이상운 효성 부회장. 사진제공 효성티앤씨

효성티앤씨 ‘바이오 소재’ 신사업 키운다

베트남에 BDO공장 신설

연산 20만톤 규모, 수급 안정화
‘친환경 소재시장’ 글로벌 선점
‘원료→섬유’ 수직계열화 성공

효성티앤씨가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화학 소재에 1조 원을 투자한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남부 바리우붕따우성 푸미 2공단에서 열린 ‘바리우붕따우성 비전선포식 및 투자승인서 수여식’에서 베트남 바리우붕따우성 정부로부터 ‘효성 BDO(부탄다이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소재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총 1조 원을 투자해 연산 20만톤(t)의 바이오 BDO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BDO는 스판덱스 섬유를 만드는 폴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PTMG)의 원료 등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다. 최근에는 자동차내장재(TPU), 포장재 등 생분해성수지(PBAT)와 자동차용 내장재, 신발 수축, 산업용 컴파운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된다.

바이오 BDO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당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제조해 석탄 등 기존의 화석 원료를 100% 대체한 제품이다.

효성티앤씨는 2026년 상반기부터 연산 5만톤 규모의 바이오 BDO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효성티앤씨는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스판덱스 공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원료부터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바이오 스판덱스 일관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세계 최초다.

효성티앤씨는 남부 바리우붕따우성 공장에서 생산된 바이오 BDO를 기반으로 호찌민시 인근 동나이 공장에서 PTMG를 제조하고, 이를 활용해 동나이 공장에서 바이오 스판덱스를 양산한다.

지난해 10월에도 효성티앤씨는 바이오 BDO 생산을 위해 미국 생명공학 기업 제노(Geno)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제노의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BDO는 화석연료 기반의 일반 제품 대비 90%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효성티앤씨는 바이오 BDO 사업을 바탕으로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를 친환경으로 탈바꿈해 화이트바이오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존 화석 원료를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는 바이오 사업은 100년 효성의 핵심 주축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BDO와 바이오 스판덱스 일관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 공략을 강화해 효성의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tune@

깜깜이 매출 올리는 C-커머스…규제사각에 K-플랫폼 피해

㊦ 안방사수 속수무책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압박이 더해지며 국내 플랫폼 업계는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불붙으며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현재 정부의 대책을 두고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은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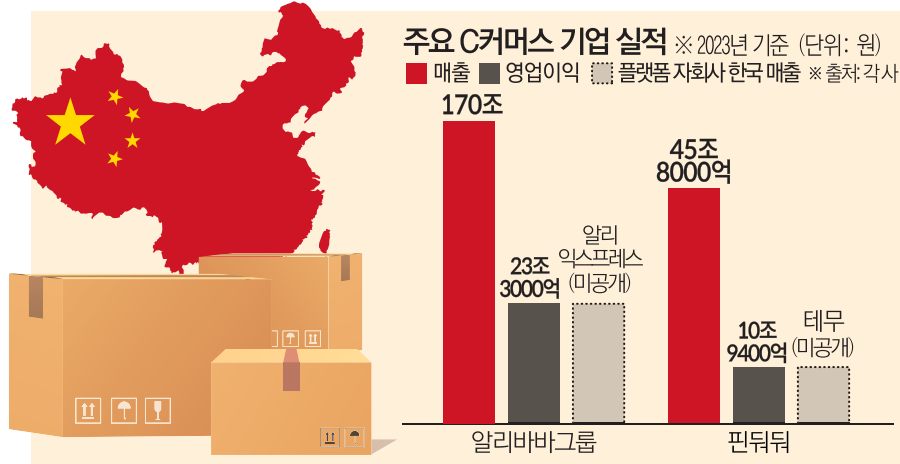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의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점화
매출·시장점유율 기준 지정시
국내매출 미공개 제재 어려워
알라테무 규제대책 실효성 無
평평한 운동장 공정경쟁 시급

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매출은 국내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규제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국경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들의 서버는 해외에 있어 알고리즘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매출을 파악할 수 없어 시장점유율 측정이 어렵게 된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받는 반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은 사각지대 속에서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모회사는 지



난해 215조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이들 플랫폼이 국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알 수 없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70조 원, 23조3000억 원을 냈다.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약 45조80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약 10조94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매출은 공개된 적

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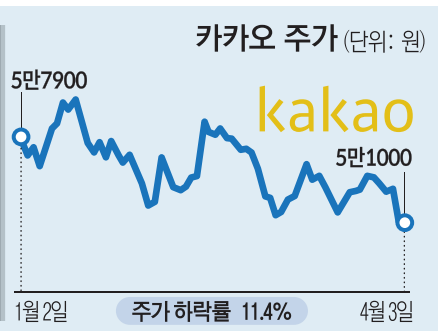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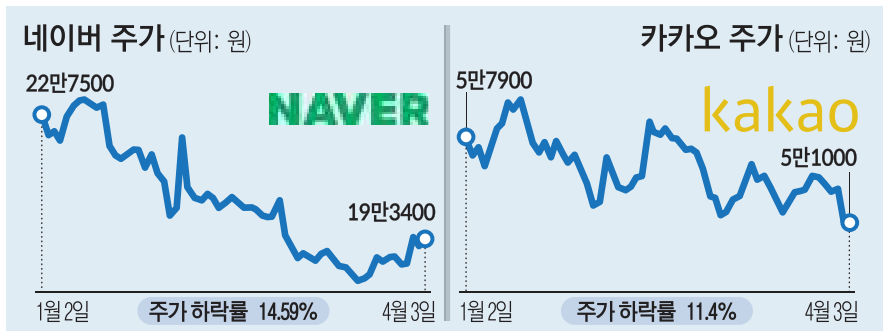
C-커머스의 공습에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해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

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결국 선부른 규제가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국내 업체에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초기삼간 태우려다 빈대를 잡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역차별로 글로벌 공통이한 국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등이 수수료와 가격에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지구 플랫폼의 침공과 확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까르푸, 월마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광고수익에 가려진 파이 싸움… 장기적 손해

테무·알리 광고 공세 ‘단기수익’
국내기업 점유율↓ 결국 악영향
을 네카오 주가 두 자릿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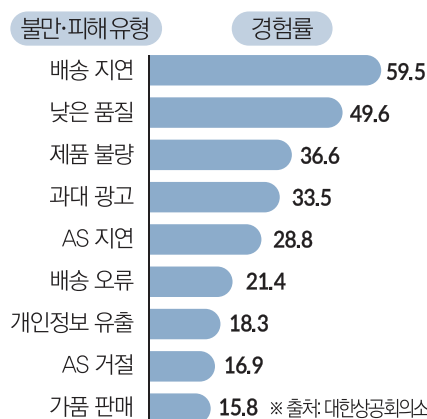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공습이 이어지자,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알리와 테무의 막대한 마케팅비로 광고 수익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뺏아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다.

3일 분지 취재 결과 지난해 대표 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합산 디지털 광고비는 약 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도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광고를 주수익원으로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월 열린 실적 발표 코퍼런스콜에서 “(C-커머스는) 네이버 쇼핑의 경쟁상대일 뿐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흥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알리와 테무가 새롭게 참여하며 마케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커머스 타격에도 선을 긋는다. 최 대표는 “네이버 쇼핑의 상품 가격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흥 전 대

국내 소비자 C-커머스 불만·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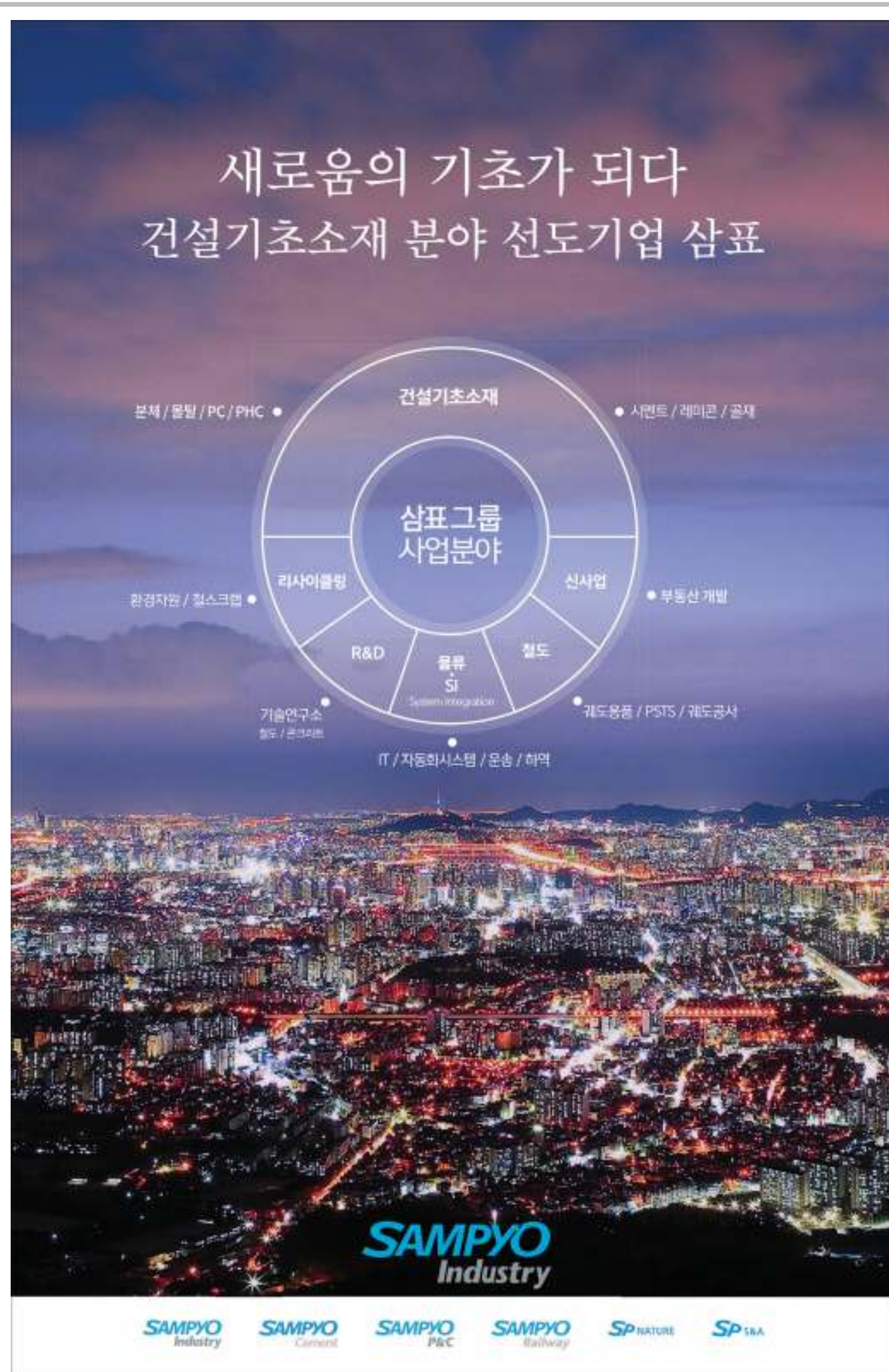


표는 “카카오는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플랫폼인 만큼 직접 영향권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내 플랫폼이 단기적으로는 광고비의 수혜를 입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머스 매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예상한다. 국내 플랫폼이 C-커머스와 광고사업 파트너를 맺는 건 위협적인 경쟁자의 점유율을 되레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초저가를 앞세운 C-커머스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현재와 같은 마케팅비도 감소할 거란 시각도 우려를 더한다.

이 같은 우려는 주가에도 비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각각 19만 원대, 5만 원대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3316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6월 당시 각각 46만5000원, 17만3000원이었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올해 들어서만 약 15%, 11% 하락한 셈이다.

임유진 기자 newjean@



3선 관록의 '경제 전문가'

이혜훈 박성준

중구·성동을

재선 노리는 '민주당의 입'

배틀필드 410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4·10 총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중심인 중구·성동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중구와 옥수·금호동이 합쳐진 이후로 여야가 번갈아 승리한 만큼 '스윙 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입' 박성준 의원과 3선의 '경제 전문가'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었다.

3일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의 성동구 금남시장에는 박성준 민주당 후보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의 플래카드가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었다. 금남시장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금호동에 터를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성동구 서민들의 대표적인 '생활 터전'이다. 박 후보는 선거 운동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첫 집중 유세를 금남시장에서 벌였고, 이 후보도 같은 날 이곳에서 출정식을 진행했다.

지역구 현역인 박 후보는 JTBC 앵커 출신으로, 2020년 민주당에 입당해 원내



3일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의 옥수역 앞에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플래카드가 나란히 걸려 있다.

20·21대 총선 여야 번갈아 승리 판세 예측 힘든 '스윙 스테이트' "정권 심판" "민주당에 실망" 팽팽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으로 통한다.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율 완화 △주택담보

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체육 스캐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로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강한 편이었다. 금남시장에서 만난 금호동 출신인 이모(63) 씨는 "당선되고 나서 (박 후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실망스럽다"면서도 "민주당도 싫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싫

李 "남산 고도제한 완화, 숙원 해결" 朴 "초고가 외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두 후보 '부동산 표심 잡기' 총력전

다.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박모(52) 씨는 "박 후보가 그동안 잘 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쪽 민주당만 찍어왔다. 이번에도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이 후보는

3선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에 미국 UCLA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역세권 민간주도 재개발 유도 등 재개발·리모델링·재건축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GTX-B 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역 신설 △을지로·명동·DDP 국제문화교류지구(K-PLAZA) 조성 △광역시 공동학군 조정으로 근거리 배정 △전·월세 안심계약·보증보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정부·여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옥수동에 거주하는 김모(75) 씨는 "좌파가 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맨날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수동에 사는 이모(79) 씨도 "지금까지 항상 국민의힘을 찍었다"며 "민주당은 잡동사니들이 모여 있는 깡패 집단 같다. 전과자들이 선거에 나오는데 세상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정대한 기자 vishalist@

오늘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지적도



"가짜뉴스 더욱 기승" 우려 시선... 선관위도 "폐지" 목소리

4·10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부터 본 투표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일 전까지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에 접어드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제도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6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기간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자의적으로 판세를 전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에서다.

선관위도 지난해 1월 금지 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

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작까지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를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금지 기간이 완전히 폐지되면 사전투표 실시 기간에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지한다면 사전투표 실시 기간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돼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여론조사 시 사전투표를 행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당선인 예상 결과가 공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또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전투표 이후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표본을 특징하는 방법으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결과를 공표·보출하게 되면 사실상 사전투표 출구 조사를 선거일 전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탈당 무소속' 부메랑에... 與, 흔들리는 PK표발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부산·경남(PK) 보수 텃밭을 흔들기 시작했다.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부산, 울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 수영구는 단일화 요구가 들끓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15대 국회 때부터 보수 정당이 차지한 곳이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앞섰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정연옥 후보와 보수표를 나눠가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단일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박수영 부산 남구 국민의힘 후보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후보 혼자 있고 우리가 분산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3등(장예찬)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정연옥 vs 장예찬 보수표 분산 우려 "부산 수영구 후보 단일화해야 승산" 울산 남구갑도 허언옥 출마에 요동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 후보 캠프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민과 당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부산 수영 현역인 전봉민 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캠프에 합류했다"며 "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장 후보는 단일화 경선을 주장하며, 단일화 무산 시에도 선거에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명분 있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연옥 후보 측에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전투표일 직

전에 단일화할 수 있다는 관측은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만일 (보수) 분열로 패배한다면 장예찬 후보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사전투표가 금, 토요일이니까 내일쯤 가면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보수 초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울산 남구갑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남구가 갑과 을로 분리된 17대 총선 이후 모두 보수 정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상옥 국민의힘 후보와 전은수 민주당 후보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허언옥 후보가 사실상 캐스팅 보드를 쏜 모양새가 됐다. 허 후보는 2일 울산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에 빠진 남구갑 보수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이를 거절했다.

부산=이난희 기자 nancho0907@

이들이 빠지면 섭하지... 유세장 누비는 '폴리테이너'

전 농구선수 한기범·배우 이영하 '동대문갑' 국힘 김영우 지원 유세 이재명 지원사격 나선 배우 이원종

정치인과 연예인의 합성어인 '폴리테이너'들의 활동 반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유세장에 올라 마이크를 잡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방식은 다양하다.

전 농구선수이자 방송인인 한기범 씨는 3일 오전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갑 후보의 유세장에 올랐다. 검정 양복을 입고 가슴팍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모자 모양 브로치를 꽂은 한 씨는 수많은 인파 앞에



3일 경희대학교 앞에서 전 농구선수 한기범(오른쪽) 씨가 김영우 동대문갑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영우 후보 캠프

등장해 김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셸럽을 동반한 유세 활동을 부쩍 늘려나가고 있다. 배우 이영하 씨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엔 가수 박상민 씨

가 그와 함께 유세차에 올랐다.

4·10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에도 유명인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스타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있다. 그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모습을 보였다. 엄 씨는 지난달 16일 원 후보, 이 후원회장과 함께 '계양회(喜)말라야 원정대'를 꾸리고 그들과 함께 계양산을 올랐다.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이도 있다. 배우 이원종 씨는 1일 계양구에서 열린 이 대표 유세현장에서 "2년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다"고 마이크를 잡았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강원 춘천 명동에서 열린 김혜란(오른쪽·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후보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강원 성산구를 방문,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박빙 55곳, 절박한 상황” 주요 격전지 돌며 한표 호소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충북과 강원, 경기 지역의 주요 ‘격전지’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재차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 충북 충주의 한 공연장과 제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가 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한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저지선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충북·강원·경기지역 유세 강행군 “여기서 밀리면 개헌 저지선도 뚫려 피땀 흘려 이룬 성과 모두 무너질 것”

‘이대생 성상납’ 논란 김준혁 후보에 “쓰레기 막말...의원 자격 없어” 맹공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금요일(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오후 강원도 원주시로 넘어간 그는 원주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유세차에 올라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뒀서 청년 정책을 통합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는 아직 지지 후보 및 정당을 정하지 못한 대표적 ‘스윙보터’ 청년 유권자의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2일) ‘정지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상한 소리를 또 했다”며 “우리도 50대인데 무슨 청년에게, 여성에게 밀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40~50대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다. 여러 공제나 5세 무상교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우리가 한 것”이라며 40·50대를 겨냥한 국민의힘 공약을 함께 소개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란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 보셨나”라며 “그게 다 드러나도 ‘미안. 난 국회의원 할게’라고 선거일까지 버티겠다고 한다. 김준혁이 국회의원 해도 괜찮나. 나는 오케이(OK)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우물쭈물하다가 가는 뒤집힌다” 野, 총선리스크 관리 안간힘

김준혁, 당 권고에 뒤늦은 사과 양문석·박민규 잇단 투기의혹에 “불법요소 있다면 모든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일부 후보의 막말·부동산 의혹 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논란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권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는 2년 전인 2022년 8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거의 모든 민주당 캠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판세, 결과를 떠나서 이런 분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가치와 부

합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선거 직전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민주당은 ‘공천 취소’ 기로에 서게 된다.

박민규 서울 관악갑 후보 일가는 지역구 내 역세권 80여 실 규모 오피스텔로 수년간 임대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후보자 부모가 결혼 초기부터 살았던 현 집을 가족과 함께 2011년 오피스텔로 신축했고 가족들이 각자 소유 등기를 했으며, 현재까지 단 한 차례 매매도 없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불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나 도덕적 기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께 낮은 자세로 설명드리고 불법 요소가 있다면(후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BRABO SPECIAL

우리가 찾고 원하는, 시대어른

BRAVO INTERVIEW

시인 나태주

"비운 낙엽 태우면 고수운 땀새 나"

레시피

주꾸미볶음과 봄나물튀김

법률 가이드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하방비책

유튜브 운동법, 무작정 따라 하면 안되는 세 가지 이유

귀농귀촌

화전민이 살던 고가에서 살았더니...

지역문화유산 순례기

혁명 군주 이성계의 강렬한 기백을 보러가자

PART 1

다시 생각해야 할 '어른'의 의미

PART 2

존경받는 어른,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

PART 3

세대 갈등 10년의 변화 들여다보니

PART 4

시대 연구자 3인, 이 시대 어른을 말하다

PART 5

유난무브먼트

"어른 될은 성숙한 시민성 아닐까요?"

PART 6

김수환-이여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PART 7

'교감과 통찰 기르기' 어른이 공부하는 이유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보건소·지소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전공의 공백 대응

보건소 246개·지소 1341개서
비대면 ‘상담·진료·처방’ 가능
처방전 약국 전송절차 등 동일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3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 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

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지

만, 대상 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38명의 공보의를 처음 다른 의료기관에 파견한 뒤, 같은달 21일과 25일 각각 47명과 100명의 공보의를 추가로 차출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 업무가 중단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도시 지역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 등에서 역할을 하던 보건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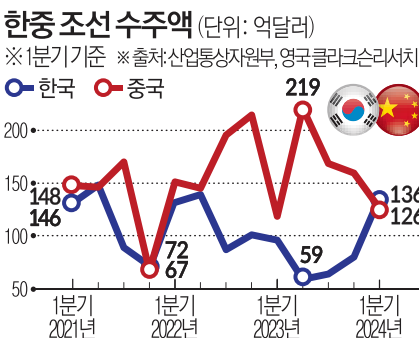
“밥 한 끼 사먹기 힘드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3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4개월째 지속됐다.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25개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는데, 비빔밥 가격 상승률이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떡볶이와 김밥이 5.3%, 냉면 5.2%, 구내식당 5.1% 순이었다. 이날 시민들이 서울의 한 거리에 외식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조선, 1분기 136억弗 수주... 中 제치고 3년만에 ‘1위 탈환’

지난해 연간수주액의 45.5% 수준
국내 조선사들, 수주량 상위 싸움이
친환경·디지털전환 흐름 대처 주요

우리나라 1분기 선박 수주액이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세계 1위에 올랐다.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암모니아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를 싸붙이한 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 기관 클라크슨리서치 통계를 인용해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



국의 수주액은 126억 달러였다.

이로써 한국은 분기 기준으로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세계 수주 1위 자리를 회복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주액은 작년 연간

수주액(299억 달러)의 45.5%에 해당한다. 수주량 기준으로는 1분기 449만CGT(표준화산톤수)로, 중국의 490만CGT보다 다소 적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의 수주량은 32.9% 증가한 반면, 중국의 수주량은 0.1% 감소해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월 수주량만 놓고 보면 한국이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다.

3월 기준 세계 수주량 상위 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사들이 모두 차지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흐름

에 발 빠르게 대처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진행 중이다. 올해 1분기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 수주 실적도 거뒀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 달러 수출달성에서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상반기에는 ‘K-조선 초격차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이달에도 최대 50% 수산물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까지

4월에도 최대 50% 수산물 할인행사가 계속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도 환급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17일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21일까지 연다. 18개 마트와 26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 소비자가 국산 수산식품을 사면 최대 50%(정부 20%, 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개 마트·26개 온라인몰 참여
6~19일 전국 64개 전통시장서
구매금액 비례 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6~19일 열린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시장 내 환급 장소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에는 행사를 쉰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으며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해수부는 4월에도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요 수산물 공급 확

대도 지속 추진한다. 오징어의 경우 이달 중 원양산 초도물량 약 9000톤을 국내에 공급한다. 최근 판매량이 많은 갈치는 주요 분산을 위해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300톤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할인행사 첫날인 오는 4일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할인행사 상황을 점검한다. 세이브존은 올해 해수부가 할인행사 참여업체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후 신규로 참여한 지역 기반 중·소형 마트다. 지난달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7% 상승해 안정세를 유지했다. 세종=곽도환 기자 soqood@

마추픽추·리버풀서 K푸드 맛볼 수 있다

농식품부, 안테나숍 확대

세계 주요 도시에서 K-푸드를 알리는 안테나숍이 페루의 마추픽추와 프랑스의 니스, 영국의 리버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K-푸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5개국에서 한국 농식품 안테나숍 2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인지도가 낮은 신규시장에 K-푸드 전문 판매장을 운영해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안테나숍과 한국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K-프레쉬존으로 구성된다. 2013년 운영을 시작한 일반 안테나숍은 유럽,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하고 있다.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남미 페루의 안테나숍, 프랑스 대표 관광도시 ‘니스’의 까르푸 내 ‘숍-인-숍’ 등이 대표적이다. K-프레쉬존은 2017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지역에 문을 열고 동남아 국가 위주로 집중돼 있던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는 시장 규모와 잠재력이 큰 중동·중남미·인도 3대 신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안테나숍 총 28개소(계획) 중 12개소(중남미 5, 중동 4, 인도 3)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테나숍 이외에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3대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이준석

임성재

황증곤

정찬민

이수민

박상현

조우영

서요섭



2024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페럼클럽
04. 25 (목) - 04. 28 (일)



우리금융챔피언십
티켓 이벤트 바로가기

SBS Golf 2

생중계 채널번호 안내

GENIE TV
62

Btv
972

U+ tv
99

skylife
219

주최 | 우리금융그룹

주관 | KPGA 한국프로골프투어
KOREA PROFESSIONAL GOLF TOUR

방송 | SBS Golf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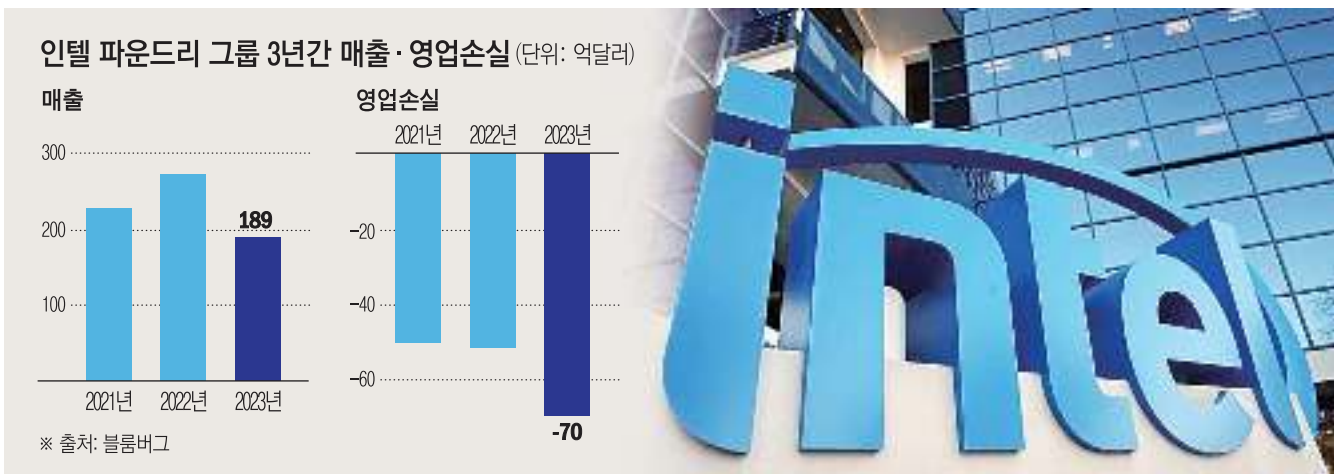
회계 변경 인텔, 파운드리 2위 됐지만… 70억弗 적자

새 기준에 파운드리 실적 첫공개
매출, 전년 대비 26% 줄어들어
자체 내부물량 비중만 95% 수준
팹 젤싱어 CEO ‘삼성 2위’ 인정

글로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매출 2위에 올라섰다. 다만 이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전체 실적에서 내부 거래물량을 제외하면 인텔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추격 중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 따르면 이날 인텔은 회계기준 변경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실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인텔의 파운드리 매출은 전년(257억 달러) 대비 26% 감소한 189억 달러(약 25조 5700억 원)에 머물렀다. 매출 감소 탓에 영업손실도 늘어났다. 손실 폭



은 전년(52억 달러) 대비 34% 증가한 70억 달러에 달했다.

앞서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글로벌 1~2위를 고수 중인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를 추격,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며 2위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도 공언했다.

인텔은 올해부터 프로덕트(제품)와 파운드리 실적을 각각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한 인텔의 2022년과 2023년 파운드리 매출은 시장

조사기관 트랜스포스가 추정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022년 매출(208억 달러)과 2023년 매출(133억 달러)을 각각 넘어섰다.

다만 새 회계기준에는 반도체 내부 물량도 전체 매출에 포함돼 있다. 인텔 파운드리 작년 매출 가운데 95%는 내부 물량이었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의 내부 물량 규모는 인텔 비중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삼성전자의 내부 거래물량이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퀄컴과 테슬라 등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고려하면 중장기 성장성은 삼성전자가 한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팹 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역시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2위’를 인정했다. 그는 이날 회계기준 변경을 설명하는 투자자 대상 웨비나(웹 세미나)에서 “2030년까지 외부 고객으로부터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

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CEO 스스로 파운드리 2위를 목표로 삼은 만큼, 현재 3위 수준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밖에 젤싱어 CEO는 지난해 파운드리 영업손실이 확대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년 전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 사용을 반대하는 등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리는 이제 EUV 장비가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역시 인텔의 향후 매출 개선과 영업이익 확대는 물론 새로운 투자에 힘을 보탬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총 195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확보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영업손실이 커졌다는 사실에 시장 반응은 매도 우위세가 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1.30% 하락 마감하고 나서 파운드리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4% 이상 하락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TSMC의 대만 7.4 강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흔들리나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25년 만에 강진… 도시 곳곳 파손
오키나와·필리핀 등 쓰나미 경보
TSMC 직원 대피… 岬 증시 하락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있는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8분께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 도시 화롄 인근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당국과 미국 지질조사국(USGS), 유럽 지중해 지진 센터(EMSC) 등이 측정한 지진 규모는 7.2에서 7.5까지 저마다 달랐지만,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1999년 9월 21일 2000명 넘는 사망자



가 발생했던 규모 7.6 지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강진 발생 후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지에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오키

나와에 해당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었다고 NHK방송은 설명했다. 이후 일본과 필리핀에서의 경보는 해제됐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대만 TSMC는 강진이 발생하자 일부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즉각 대피령을 내렸다. TSMC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의 안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직원 안전을 보장하고자 일부 인력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영향을 미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TSMC는 이후 “직원들은 안전하고 복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사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 역시 일부 시설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발표했다.

아직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피해 소식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4일 내로 규모 6.5~7.0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도 규모 6.5의 여진이 감지됐다.

지진 여파에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출렁거렸다.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7%, 대만 증시 가관지수는 0.63% 각각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대만 증시에서 TSMC 주가는 1.27%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부터 ASE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대만 기업들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취약한 공장에서 아이폰,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부분을 만들고 조립한다”며 “단 한 번의 진동으로도 정밀하게 만들어진 반도체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00@

美·日 전략제품 보조금 맞손
中 공급망 과도한 의존 탈피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배터리·영구자석 등과 같은 전략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만남에서 두 정상은 국방·경제·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전략제품 보조금 공통 기준 설정은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다.

닛케이는 양국의 이러한 노력이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각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동참국 확대도 추진한다. 유럽을 포함해 동일한 공급망을 가진 국가들과 전략물자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국제규칙을 개발해 정책 조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의 공통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나 러ndon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장 간의 회담도 이뤄진다.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시장을 값싼 제품으로 장악하자 서구권에서 탈탄소화 계획을 위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이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됐다.

향후 보조금과 세금 감면에 대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면 양국 기업이 상대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국경 간 협력 촉진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는 제조업 투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구매자를 직접 지원하는 수요 창출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진영 기자 m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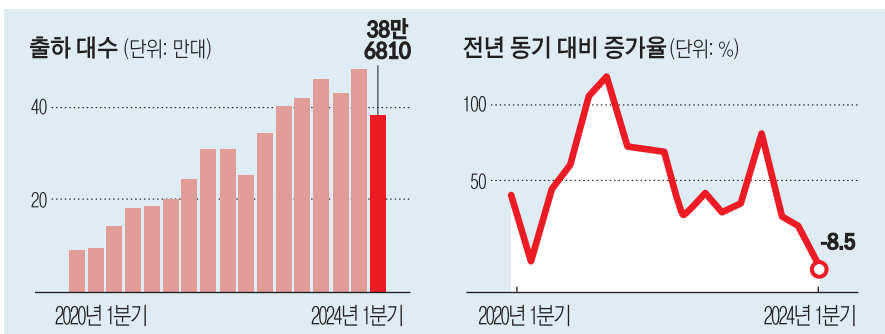
中 저가 공세, 美시장 정체… 안팎서 치이는 테슬라

테슬라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시장 성장 정체에 무릎을 꿇으면서 1분기 저조한 인도 실적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1분기 전 세계 신차 출하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줄어든 38만 681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분석기관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45만 7000대를 크게 밑돈 것이다. 전년 대비 출하량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공장 운영이 중단됐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1분기 차량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43만 3371대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로는 12.5% 줄었다. 테슬라는 성명에서 “생산량 감소는 모델3의 부분 변경으로 캘리포니아주 프렘몬트 공장 생산라인 가동 속도가 늦춰졌기 때문”이

테슬라 분기별 신차 출하 대수·증가율



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부진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있다. 중국 비야디(BYD)는 2월 7만 9800위안(약 1483만원)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가격 경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달 출시한 ‘디스트로이더 07 하이브리드’ 신형은 시작가를 구형보다 11.3% 낮췄다. 배터리 양산 기

술을 활용해 생산 원가를 대폭 줄인 것이 가격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일조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시장 정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차 판매의 8%를 차지했던 전기차 비중은 올해 2월 6%로 내려왔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이 미국에

1분기 출하 8.5% ↓ … 전망치 밑돌아
美 충전 인프라 부족… 주가 29% 뚫

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 전역에 100만 곳 이상의 충전소가 필요하다. 현재 설치된 충전소는 목표치의 10%에 불과하다.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중국과의 갈등 고조로 미국은 기업들에 중국 부품 사용 배제를 주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미 출시된 모델3은 미국 공장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

실망스러운 성적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 하락한 166.63달러에 마감했다. 1분기 주가 하락 폭은 29%에 달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한화, 모멘텀부문 물적분할... 풍력·태양광은 이관

이사회서 사업 구조개편 결의

한화그룹이 사업군별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일부 사업부에 대한 계열사 간 스몰딜을 추진한다. 한화의 일부 사업을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에 양도하고 모멘텀 부문을 물적분할한다.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일부 사업을 한화오션 및 한화솔루션에 양도하는 한편, 모멘텀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사업 구조개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한 구조개편은 내달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월 초 완료할 예정이다.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은 사업별 '밸류체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상풍력 관련 선박 건조 분야의 선두주자인 한화오션은 이번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양수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한화 건설부문의 관련 사업 실적과 경력이 풍부한 설계·조달·시공(EPC) 인력 등을 확보하면서 기본설계 능력과 관리 역량을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사업 개발에서 발전 및 전력 판

100% 자회사 한화모멘텀 신설 태양광장비는 한화솔루션 갖고 해상풍력·플랜트, 한화오션으로

한화에어로, 인적분할도 검토 항공·방산·우주항공만 남기고 정밀기계·비전, 신설 지주사에

매에 이르는 해상풍력 밸류체인 완성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한화솔루션도 한화 모멘텀 부문의 태양광 장비 사업 양수로 차세대 태양광 기술 관련 장비 개발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태양광 장비 관련 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해 고객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내 혼재돼 있던 태양광 사업을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한화솔루션으로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태양광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모멘텀 부문에 대한 물적분할도 단행한다. 한화의 100% 자회사인 한화모멘텀을 신설, 이차전지장비 사업 전문화를 추진한

다. 한화모멘텀은 태양광 장비사업의 한화솔루션 양도와 맞물려 오롯이 이차전지장비 사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 경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100% 자회사로 분할되는 한화모멘텀은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향후 최소 5년간 상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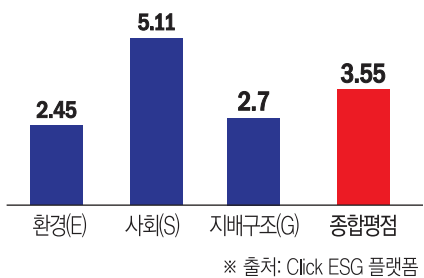
핵심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공시에서 “주주 가치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인적분할을 검토하고 있으나, 본 인적분할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에 남는 항공과 방산, 우주항공 등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정밀기계와 한화비전을 가지는 신설 지주회사는 막내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부사장) 몫이 될 전망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사업군별 전문화를 추진해 각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한화의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도 함께 제고한다”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인 글로벌 부문의 고부가 소재사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중소·중견기업 ESG 점수지수

(2022~2023년도 10점 만점 기준)



중소·중견기업 ESG 환경 부문 가장 취약

상의 “수도권 큰기업일수록 고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점수가 10점 만점에 3.5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E) 부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개 사의 2022~2023년 ESG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ESG 경영 수준을 점수화했을 때 10점 만점 기준으로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으로 집계됐고, 종합 평점은 3.55점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문에서 평점이 가장 낮은 항목은 ‘재생에너지 사용량 측정’으로 평균 0.32점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수급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온실가스 측정 등 대기오염 물질 감축 준비가 미흡한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67점)이 비수도권(3.2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비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자동차부품, 산업용기계, 화학제품 등 탄소·환경규제에 많이 노출된 제조업종이 다수 분포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 ESG 종합 평점은 상장사 4.84점, 외감법인 3.96점, 비외감법인 2.85점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강문정 기자 kangmj@

조선 3사, 1분기 흑자 전망

삼성중공업의 438% 늘 듯 증권가 “저가수주 물량 해소”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 모두 올 1분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조선 3사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하거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분기 196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은 올 1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약 438.2% 늘어난 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어난 2조 26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분기 2005년 수주했던 해양플랜트 공사 하자 배상 청구 관련 일회성 비용 700억 원이 반영되는 등 악재가 겹치며 19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었다. 올 1분기엔 166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 역시 5조 604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4%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다.

한화오션은 전년 동기, 전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었지만, 올 1분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오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73억 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한 2조 2689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조선 3사가 1분기 흑자 달성, 실적 개선이 가능했던 것은 저가수주 물량이 대부분 해소됨과 동시에 고부가 선별 수주 물량의 소화가 시작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안유동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2022년 수주한 고부가 수주 물량 관련 매출 인식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3~4년간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사업 확장

선박 유지보수에 탄소저감 사업 AI 기반 ‘저탄소 운항 지침’ 제공

HD현대마린솔루션이 탈탄소, 디지털화 등 글로벌 친환경 기조에 맞춰 기존 선박 AM(After Market·선박 유지·보수)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2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판교 글로벌R&D센터(GRC)에서 대상으로 사업 전략과 향후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의 생애주기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토털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며 “최초 설립 당시만 해도 전체 임직원 수가 150여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80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신주모집으로 445만 주를 발행하고 구주매출로

445만 주를 내놓으면서 총 890만 주를 공모한다. 예상 공모 금액은 최대 7420억 원 수준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기조에 맞춰 AM 솔루션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AM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 △병커링(선박 연료공급)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선박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육상전원 공급장치(AMP) 개조 △LNG 재액화 설비 개조 △노후 LNG선 FSRU 개조 등 친환경 개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선박 운항 정보 수집과 선박 관리의 효율화·최적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의 효율적 운용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해양데이터 솔루션 ‘오션와이즈(OceanWise)’의 글로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션와이즈는 AI 알고리즘으로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예측하고, 최적의 운항 지침을 제공해 탄소배출저감을 돕는다. 이동욱 기자 toto@

샘표, 2028년까지 제천에 공장 신설... 바이오 소재사업 본격화

제천 제2산업단지 투자 협약

샘표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새 공장을 열고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샘표는 전날 충북 제천시청에서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 제2산업단지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샘표는 2028년까지 충북 제천 제2산업단지 내 약 8만 1000㎡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

한다. 주요 제품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를 진행,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샘표는 새 공장에서 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샘표는 2013년 아시아 유일의 식물성 발효전문연구소인 ‘우리발효연구중심’을 설립, 매년 매출의 4~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의 20% 이상이 연구인력이며, 미생물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소재 개발

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전통 한식 간장을 복원해 ‘맑은조선간장’을 대량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콩발효에센스 ‘연두’로 해외 권위있는 단체와 기관에서 수많은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의 우리 맛을 외국인들이 즐기도록 세계화하는데 일조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샘표 토장과 조선고추장, 질러 육포 등을 생산하는 충북 영동 샘표 공장은 아시아 최초로 ‘SQFI(Safe Quality Food Institute) 올해의제조업체’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식품안전·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성과도 인정받았다. 제천 새 공장까지 신설되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시너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선 대표는 “샘표는 독보적인 미생물 제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이 샘표의 발효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인이 우리 맛으로 더욱 즐겨워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i42@

AI 내세운 가전의 삼성... ‘초연결 생태계’ 승부수

‘비스포크 AI’ 신제품 공개

한중희 부회장 미디어데이서
15종 풀 라인업 전 세계 론칭

“보안성·연결성 최우선 순위
터치·음성으로 손쉽게 제어”

“냉장고, 세탁기 등 개별 가전에서 터치나 음성으로 집안 내 다른 제품들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의 녹스 매트릭스를 통해 사용자 보안도 더욱 강화했다.”

한중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신제품 론칭 미디어데이 ‘웰컴 투 비스포크 AI’에서 2024년형 비스포크 AI 신제품을 공개했다.

비스포크 AI는 삼성전자만의 여러 AI 기능이 ‘스마트싱스’의 초연결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맞춰주는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전체 15종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업계 최초로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에서도 미디어데이를 열고 전 국가에서 동시에 신제품을 론칭했다.

한 부회장은 무엇보다 보안성과 연결성을 강조했다.



①한중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부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미디어데이에서 비스포크 A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삼성전자 모델들이 2024년형 비스포크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보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품을 개발해 왔다”며 “‘비스포크 AI 스템’ 로봇청소기와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글로벌 인증 업체 UL 솔루션즈에서 업계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보안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냉장고, 세탁·건조기, 청소기 등 각각 개별 제품들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초연결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동돼 터치나 음성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실제로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에 탑재된 7형 와이드 터치스크린 ‘AI 홈’을 통해서 세탁 중에도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다. 또 음성 명령 만으로도 세탁기 문을 열 수 있었고,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주방에 있는 오븐의 남은 조리 시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TV에서 실제 집 구조를 토대로 생성한 3차원 맵뷰 화면을 띄워 공간별 기기의 위치와 상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원 제어까지 가능했다.

한 부회장은 “음성 명령의 경우 연내에



②삼성전자 모델들이 2024년형 비스포크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까지 적용돼 빅스비를 통해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스템’ 로봇청소기를 최초 공개했다. 이 제품은 170만 개의 사물 데이터를 사용한 AIDNN(Dep Neural Network) 모델을 기반으로 전면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다. AI 바닥 인식 기능으로 마룻바닥과 카펫을 구분해 맞춤으로 청소한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약

100만 장의 식품 사진을 학습한 비전 AI 기술로 스마트한 식재료 관리를 도와준다. 내부 카메라가 입·출고되는 식재료를 인식하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을 토대로 보관된 식품의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사전에 설정한 보관 기한이 임박하면 알림도 준다.

이외에도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자동으로 화력을 조절해주는 ‘비스포크 AI 인덕션’, 말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컨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 등도 선보였다.

박민웅 기자 pmw7001@

SK하이닉스, 美인디애나주에 HBM 패키징 공장

38.7억 弗 투자... 2028년 양산
美정부 관계자와 투자협약식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엠티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Purdue) 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 2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3일(현지시간) 웨스트라피엠티에 소재한 퍼듀대에서 인디애나주와 퍼듀대, 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투자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디애나에 건설하는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시설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AI 시대의 개막과 함께 HBM 등 초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SK하이닉스는 그간 미국에 대한 첨단 후공정 분야 투자를 결정하고 최적의 부지를 물색해왔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를 최종 투자지로 선정한 것에 관해 주 정부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은 물론, 지역 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 공학 연구로 유명한 퍼듀대가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SK하이닉스와 새로운 파트너십이 장기적으로 인디애나주와 퍼듀대를 비롯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당사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맞춤형 메모리 제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퍼듀 연구재단, 지역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더 똑똑해진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

현대차·기아 새 디자인·솜품 공개
2분기부터 ‘팩토리얼 성수’ 적용

사람이 있는 곳까지 식음료 또는 물품을 빠르게 배달해 편의를 높여주는 배송로봇 서비스가 일상생활로 들어온다.

현대차·기아는 3일 배송로봇 ‘DAL-e Delivery(이하 달이 딜리버리)’ 로봇의 새로운 디자인 이미지와 솜품(short-form) 영상을 공개했다.

달이 딜리버리는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 복잡한 공간에서도 고객이 물건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하는 로봇이다. 지난 2022년 12월 현대차·기아가 공개했던 호텔배송로봇을 개선해 새롭게 개발됐다. 최소한의 센서만 노출시키고 무게 중심을 하단에 두어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올해 2분기부터 이지스자산운용의 ‘팩토리얼 성수’에서 달이 딜리버리를 최초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로 적용한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팩토리얼 성수는 오는 4월 입주를 시작하는 스마트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해 5월 현대차·기아는 이지스자산운용과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롯데알미늄, 배터리 소재·패키징 분할 신설회사 출범

롯데인프라셀·패키징솔루션즈
최연수 신설법인 대표이사 겸직

롯데알미늄은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해 배터리 소재 기업 ‘롯데인프라셀’과 패키징 특화 기업 ‘롯데패키징솔루션즈’를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존속회사의 최연수 대표가 신설법인 두 곳의 대표이사도 겸직한다.

롯데알미늄의 양극박 및 일반박 사업을 영위하던 BM(Battery Material·배터리소재)사업분부는 ‘롯데인프라셀’이라는 신설법인으로, 캔·연포장·

골판지·생활용품·PET병 사업을 영위하던 PM(Packaging Material·패키징소재)사업분부는 ‘롯데패키징솔루션즈’라는 신설법인으로 각각 분할됐다.

롯데인프라셀은 배터리 소재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배터리 소재 전문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 패키징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아이템과 차별화 제품을 확대해 시장을 선도한다.

최연수 롯데알미늄 대표이사는 “회사 분할에 따라 전문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경영 효율성도 한층 증대돼

기업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롯데알미늄은 롯데케미칼과 합작해 미국 켄터키주에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를 설립했다.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는 미국에 세워지는 최초의 양극박 생산 기지로, 화학군 2개 핵심 계열사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을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유럽 양극박 시장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헝가리 터터바너 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현재 2단계 추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연내 가동에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새 출발 ‘르노코리아’... 차명·엠블럼 다 바꿨다

태풍의 눈 폐고 로장주 변경 나서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 오픈

프랑스자동차 브랜드 르노가 한국에서 새 출발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기존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엠블럼도 태풍의 눈에서 다이아몬드 형상의 르노 엠블럼 ‘로장주’로 변경한다고 3일 발표했다.

르노코리아는 르노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인 ‘일렉트로팝’을 국내 시장에 적용해 갈 계획이다.

르노의 일렉트로팝 브랜드 전략은 △모터스포츠 F1 노하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기술을 아우르는 르노의 E-Tech 전동화 기술 △르노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오픈 R 링크를 중심으로 운전 경험의 혁신적인 향상을 돕는 커넥티비티 기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휴먼 퍼스트 프로그램 등 3가지 기술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

르노코리아는 이번 전략 발표와 함께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를 오픈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日진출 시동 건 로앤컴퍼니…“K리걸테크 수출 1호 될 것”

‘한일스타트업협력포럼’ 참가

국내 리걸테크 업계 대표인 로앤컴퍼니가 일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건다.

3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한일스타트업협력포럼’에서 일본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CVC(대기업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첫 공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비롯해 이토추상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테이진 등 일본 공공기관, 은행, 대기업 총 11개 기업 및 기관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온, 폴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10곳이 참여했다.

로앤컴퍼니는 국내 리걸테크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리걸테크 시장에서 ‘에비유니콘’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인 신생기업)에 선정된 곳은 로앤컴퍼

11개 기업·기관 대상 설명회

6월 AI법률비서 ‘슈퍼로이어’

변호사용 B2B SaaS 솔루션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기대

니가 유일하다.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AI를 무기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당장 오는 6월 AI 법률비서 ‘슈퍼로이어’를 출시한다. 슈퍼로이어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변호사 업무의 효율을 획



김본환(왼쪽 사진) 로앤컴퍼니 대표와 로앤컴퍼니가 6월 출시하는 인공지능(AI) 비서 ‘슈퍼로이어’ 서비스 전시 이미지.



사진제공 로앤컴퍼니

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이다. 변호사들은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법률문서 요약 및 정정 정리 △법률 질의응답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 방대한 업무를 슈퍼로이어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슈퍼로이어가 보급되면 AI 기술을 활용해 판례 검색과 분석, 법률 서식 초안 작성 등을 단시간 내에 마치

고 소송 전략 수립과 클라이언트의 소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미 2019년 사내에 법률 AI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에 힘썼지만 법률 분야의 기술 접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서비스 고도화가 더뎠다. 그사이 미국의 렉시스넥시스사가 AI 리걸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는 이같은 해외 리걸테크에 대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본환 대표는 전날 포럼에서 “로앤컴퍼니의 다음 목표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 법률시장에서도 AI 법률비

서 슈퍼로이어의 경쟁력을 확실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리걸테크 수출 1호기업이자 양국 리걸테크 발전의 가교 역할을 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는 사우디 법무부 기획개발 차관보와 해외협력 담당관을 포함한 대표단이 로앤컴퍼니 사옥을 방문했다. 당시 사우디 대표단은 로앤컴퍼니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판례 데이터 처리와 분석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우디 대표단 관계자는 “로앤컴퍼니의 AI 기술을 활용해 현지 판결문 분석 관련 협업뿐만 아니라 현재 법무부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로앤컴퍼니의 AI 기술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사우디 법무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전 세계 법률 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022년 13억 달러(1조7300억 원)에서 2030년 87억 달러(11조6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생성형 AI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눈높이 스쿨 ONE

눈높이 스쿨 ONE

세상에 없던 1:1 밀착 케어 디지털 학습

초등 전 교과 연계 최대 교과 문항 수록

개념부터 유형까지 완전 학습

전문 선생님의 대면 1:1 밀착 케어

위드캠 학습관리로 즉시 질문, 오답 해결

소니드 “3년內 美페배터리 재활용시장 진출”

중화유리사이클과 합작법인 설립 연내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 완공

“한국형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기반으로 3년 내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오중건 소니드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화유리사이클링 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사업 본계약 체결 및 공동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드러냈다.

오대표는 한국이 화유리사이클링의 폐배터리 처리 영업 및 판매망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북미와 유럽, 주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폐배터리 원료를 확보하고, 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로부터도 폐배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엔 오 대표와 바오 웨이 화유리사이클링 대표 등 양사 임원이 참석했다.

바오 웨이 화유리사이클링 대표는 “화유리사이클링의 배터리순환주기 관리 기술과 소니드의 풍부한 폐배터리 해체 기술을 통해 선진적인 리사이클링 공정을 설계할 것”이라며 “두 기업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상호 이익 실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인 합작법인 설립은 4월 중 화유리사이클링이 직접 투자 후 완료되며, 화유리사이클링이 직접 경영에 참여해 회사가 보유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공장 도면 및 시공업 체 리스트 △영업 및 운영 노하우 등을 합작사업에 접목하게 된다.

합작법인명은 ‘소니드화유리사이클’이며,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을 올해까지 완공하고 향후 해외 진출과 사업 영역을



오중건(왼쪽) 소니드 대표와 바오 웨이 화유리사이클링 대표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소니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화유리사이클링의 배터리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돼 해외 폐배터리 전처리 부문 허브로서 아시아와 해외 지역 폐배터리 전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화유리사이클링이 보유한 글로벌 배터리 인프라를 통해 폐배터리 수급과 블랙 파우더 판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배터리 사업 기술을 쌓고 있는 소니드는 화유리사이클링과의 합작법인으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소니드는 2022년부터 폐배터리 수집과 성능 검사, 전·후처리 공정으로 구성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왔다. 또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인허가와 전·후처리 공정 사업부지, 저전 설비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자회사 소니드온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해체, 보관, 방전, 잔존가치 평가 등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우수 배터리 셀 제조사와 완성차 기업 등을 핵심 거래처로 확보한 경험이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발행부터 상장까지 해드려요”… 코인 시장 ‘사기 주의보’

포털사이트·크몽 등 광고 성행
대다수 업체들 “상장 가능” 장담
상장피 미끼로 수천만원 요구도
‘프리세일’ 토큰 사기 피해 발생
금융당국, 강경 대응에도 기승

금융당국이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퇴출한다’고 공언한 상황에서도 상장 대행 업체의 꼼수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선 상장 대행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선 해외거래소 상장 등을 미끼로 한 ‘프리세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프리세일은 거래소 상장 전 장외거래를 통해 상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큰을 판매하는 단계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내 포털 사이트와 크몽 등에서는 MEXC, 엘뱅크 등 미인가 거래소는 물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대행한다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상장피를 포함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요구한다.

복수의 업체에 상장 문의를 해본 결과, 대다수 업체는 실제로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공언했다. A 업체는 “국내외 거래소 상장 여부는 프로젝트 상태에 따라 다르다”며 “실유저가 사용하는 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B 업체 또한 “프로젝트에 상태에 따라 상장피가 다르다”며 “국내 거래소는 지금 상장이 어렵지만, 해외 거래소 상장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을 시켜 줄 수 있다는 업체도 있었다. C 업체는 “프로젝트 상태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원화 거래소)에도 상장이 가능하다”며 “상장피를 공개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상장 컨설팅과 더불어 유동성(MM)도 제공한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상장 대행뿐만 아니라 백서 제작, 코인 발행, 홈페이지 제작 등 상장 과정 전반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업체가 모든 과정을 준비해 준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신뢰

성은 없다시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내 업체는 컨설팅 등을 통해 발행된 토큰이 국내 원화거래소에 직접 상장되거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비협업의 상장 등을 통해 역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원화거래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자제 역량이 부족한 코인들이 국내 원화 마켓에 상장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좋은 프로젝트라면 거래소가 먼저 나서서 1분1초라도 빨리 상장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대행을 맡길 정도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프로젝트들

이 원화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위험을 안고 상장피를 받는 것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행으로 발행된 코인의 해외거래소 상장 자체보다는 미끼로 행해지는 ‘프리세일’과 관련한 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 뒤 거래소에서 보여지는 그래프를 통해 ‘수익이 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대행 업체를 통해 발행되는 코인은 대부분 실제 거래를 통해서가 아닌 ‘프리세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에서는 피해가 두 번 발생한다. 첫 번째로는 상장을 미끼로 프리세일을 통해 토큰을 판매하고, 상장 뒤 시세 조작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두 번째로 2차 판매와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상장된 거래소 차트에서는 ‘보여주기용’ 가격이 몇 배씩 뛰기도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프리세일로 구매한 토큰에는 락업이 걸려 있어 판매할 수 없고, 그동안 업체는 사업을 정리하고 도망친다. 완전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가상자산 피해 사례 1504건 중에 37%가 넘는 561건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기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행을 통한 발행 및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상장 전 싼값에 코인을 사게 해 준다는 식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이시은 기자 zion0304@

AI 기본법 마저… 논의 없이 사라지는 IT 법안들

막 내리는 국회에… 폐기 수준

전체 의안 중 63% 법안 계류돼
AI 기본법·앱마켓법 수면 아래로

21대 국회의 공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준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과 AI 기본법의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4월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원칙을 삭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EU 등 세계 각국에서 AI 규제·진흥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국내 IT 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법안 중 하나는 ‘앱마켓 독점방지법’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앱마켓 또는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Sideload)’을 법제화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다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공정위가 구글을 상대로 시장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면서 발의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를 경쟁 앱인 윈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시장 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 휴대전화 iOS에서 앱스토어 외에 구글플레이, 윈스토어 등을 쓸 수 있게 된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게 해 취약계층 통신 복지를 강화하도록 법안이 폐기되어야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기업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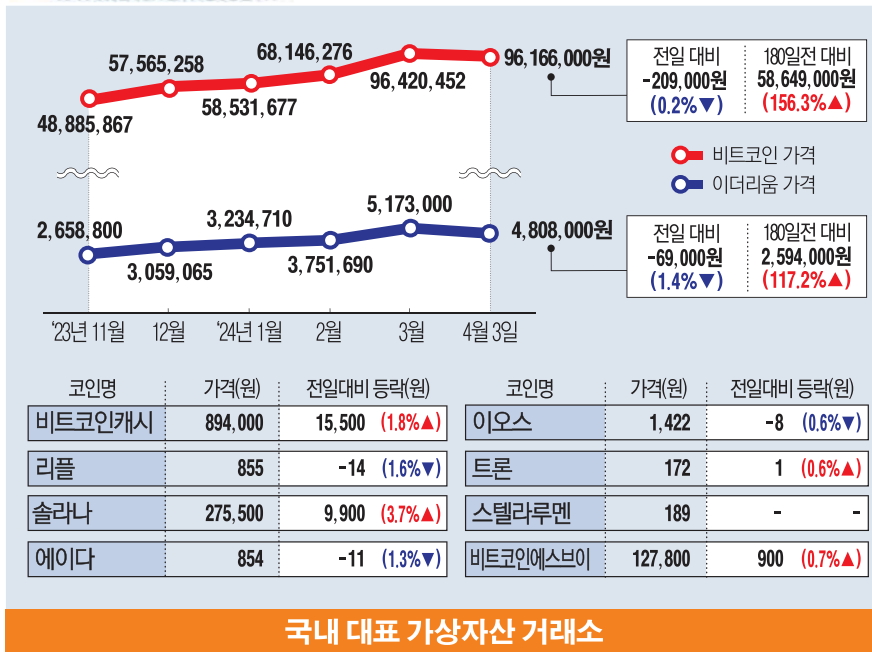
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도 8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제차 우려를 표한 터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유리 기자 inglass@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4월 3일 17:00, KST)



효능 높이고 부작용 줄이고...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글로벌 시장규모 100조 전망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개발이 한창이지만 정식 허가 사례는 없어, 어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증·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은 마약성 진통제가 대다수다. 먼디파마가 공급하는 '옥시코돈' 성분의 주사제·경구제가 대표적이다. 다만 중독성이 있고, 과도하게 투약할 경우 호흡 억제와 의식불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대체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비마약성 진통제 연구·개발 완주를 앞둔 기업은 비보존제약이다. 자체 개발 후보물질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오피란제린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2A'와 '글라이신 수용체 2형'을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이다.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개발			
기업	후보물질	기전	개발단계
비보존제약	오피란제린	세로토닌 수용체 2A 및 글라이신 수용체 2형 동시 억제	식약처 허가 신청
올리패스	OLP-1002	통증 유발 Nav1.7 단백질 발현 유전자 SCN9A 억제	2a상 완료
메디포럼	MF018	글리아 세포 활성화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2상 승인
아이엔테라퓨틱스	iN1011-N17	Nav1.7 단백질 억제	1b상 진행

※ 출처: 각 사

중독·의식불명에 대체제 필요

비보존제약 '오피란제린' 3상 끝

작년 11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올리패스 후보물질 기대감 꺾여

메디포럼·대웅제약은 개발 초기

회사에 따르면 오피란제린은 국내 임상 3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 후 통증환자 285명 대상 연구결과, 오피란제린 투약군이 위약군과 비교해 평균 35% 높은 통증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 투약 후 이상 사례는 구토와 메스꺼움 등 대부분 경증이었으며, 발생 빈도는 위약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비보존제약은 국내 출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보령과 국내 상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비보존이 오피란제린을 완제품 형태로 보령에 공급하고, 양사가 유통과 판매 역할을 분담해 협력한다. 비보존의 약물중치료제 등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령의 투자와 기술이 전도 논의할 예정이다.

올리패스는 통증 신호 전달 역할의 'Nav1.7'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 'SCN9A'를 억제하는 원리로 통증을 완

화하는 기전의 후보물질 'OLP-1002'를 개발 중이다. 올리패스는 향후 기술수출에 대비해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다만,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임상결과에 시장의 기대감이 꺾인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OLP-1002의 호주 임상 2a상 결과, 59명의 관절염 통증환자 가운데 OLP-1002 투약군보다 위약군의 통증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LP-1002가 위약보다 효과가 작았다는 의미다.

메디포럼과 대웅제약은 개발 초기 단계다. 메디포럼은 천연물질에 기반을 둔 비마약성 암성통증 치료제 'MF018'을 개발한

다. 계피 추출물 유효 성분인 '신남산'을 활용해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글리아 세포' 활성화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대웅제약은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를 통해 비마약성 골관절염 통증 치료제 'iN1011-N17'을 개발 중이다.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외에서 중독과 부작용 위험이 없는 진통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은 2022년 29조 원에서 2030년 3배 이상 성장해 10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진통제 옵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중증, 암성 통증은 강도가 높아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한번 투약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효과가 약한 비마약성 진통제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중독성 이슈에서 자유로운 진통제가 상용화한다면 임상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hsj@

기침소리만으로도 건강데이터가 '척척'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리만으로 질병을 분석할 수 있는 시대다. 과거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간편하게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일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소리로 질병을 분석하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업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웨이센은 기침 소리로 호흡기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이메드 코프'를 개발했다. 웨이메드 코프는 기침 소리를 녹음하면 현장에서 신호등 형태로 호흡기 건강상태의 위험 정도를 알려준다.

회사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자들의 기침 음데이터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해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만성 폐쇄성폐질환자, 천식, 폐렴 등 1000여명의 기침 소리를 수집해 라벨링 하고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확보한 음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침 소리에 따라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웨이센은 현재 해

소리 분석 헬스케어 기술 속속

웨이센, 녹음해 호흡기 건강 확인

사운드블헬스, 소변 볼 때 소리로

전립선 등 비뇨기질환 유무 판별도

외 진출을 목표로 다국어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이미 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사운드블헬스는 소변을 보거나 호흡할 때 나는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분석해 질환 중증도를 확인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소변 소리로 전립선과 방광 등 비뇨기 질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프라이드P(proudP)는 요도의 배뇨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요속검사에서 착안했다.

회사는 소변을 볼 때 나오는 소리를 토대로 속도, 양, 시간 등을 AI로 분석해 질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했다. 병원에서 전립선 검사를 할 때 저울이 장착된 변기에 소변을 보며 시간당 소변의 양을 측정한다. 전립선에 이상이 있

으면 시간당 소변 양이 적게 나오는 원리다. 프라이드P는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2등급 의료기기 등록 후, 미국 전역 비뇨기질환 전문클리닉에서 복과장과 수술 전후 모니터링으로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소리로 질병을 찾는 연구도 어이하고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응주·이지은 교수 연구팀은 최근 급성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의 목소리를 분석해 폐부종 악화와 호전 상태를 반영하는 음성적 특징을 딥러닝으로 학습시켰다. 그 결과 목소리로 분류한 환자의 상태와 실제 환자 상태 비교 결과가 8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한 관계자는 "소리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면 일상 생활에서 질환 상태 확인이 가능해 병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은 위험이 감지되면 병원에 가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해 병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걷기, 금연, 마음건강으로 구성된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3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임직원 건강증진 나섰다

걷기·금연·마음건강 프로그램 맞춤형 커리큘럼 통한 건강 개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일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금연', '마음건강'으로 구성된 3종의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걷기 챌린지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동기부여를 위한 걷기 미션을 매일 새롭게 제공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모집한 주만에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를 신청했다. 임직원은 참여 기간 헬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일 걸음 수를 측정한다. 매일 첫 주인 바디 등 전반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해 개선 현황을 제출한다. 우수 참가자에게 사내 피트니스센터 1개월 이용권 등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금연 챌린지는 참가자들의 흡연 욕구 완화를 위해 흡연 경력 및 니코틴

의존도 등을 조사한 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연구보건소와 연계해 주기적으로 흡연 여부를 측정하고 목표 달성 참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연챌린지가 시작된 2022년부터 임직원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체 챌린지 참가자의 27%가 금연에 성공했다.

임직원 마음건강 케어도 강화한다. 스트레스 및 수면 관리, 감정 이해, 점심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임직원들의 상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다 섬세한 마인드 케어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바이오 마음챙김 상담소 내 명상실을 일과 중 상시 운영한다.

또 건강드림센터를 상시 오픈해 혈압, 체질량, 근골격계 위험성 등 건강지표를 365일 24시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검진 유소견자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GX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기마다 외부 전문의 초청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컬리 물류센터 찾은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점검

〈오유경〉

관련 업계 4곳과 간담회 열기도 "정부서 신속한 검사체계 마련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3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와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찾아 새벽배송 농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은 새벽배송 농산물의 배송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년 1월 문을 연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새벽배송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컬리 물류센터에서 오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의 유통환경과 신속검사를 위한 농



오유경 식약처장이 3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새벽배송 농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물 검체 채취 현장 등을 둘러보고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 등을 둘러보고 새벽배송 4개 업체(컬리, 쿠팡, 에스에스지닷컴, 오아시스)와 배송 전 신속검사 체계

운영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체 관계자는 "당일 또는 익일 새벽까지 배송해야 하는 유통환경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새벽배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오 처장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검사인력을 보강해 새벽배송 농산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 SPC ‘유러피언 드림’ 좌초 위기

SPC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허 회장이 역점을 둔 해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허 회장의 ‘그레이트푸드컴퍼니(위대한 식품기업)’를 향한 꿈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SPC가 추진 중인 유럽진출 등 해외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법에 따라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4일 오전이다. 검찰은 시한 내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회장은 올 3월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응하지 않

檢, 기한 내 구속영장 청구할 듯
현재 10개국 560여개 매장 운영
유럽진출 등 해외사업 ‘빨간불’

구속뎀 이탈리아 진출 가능성↓
의사결정 올스톱·이미지 실추도

다가,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날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SPC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그와 같은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SPC가 주력해 온 해외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허 회장



은 ‘글로벌 사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연매출 20조 원, 전 세계 매장 1만2000개를 보유한 ‘그레이트푸드컴퍼니’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실제로 허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SPC그룹은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에 진출해 56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허 회장이 검찰 체포에 이어 구

속영장까지 집행 될 경우 당장 이탈리아 진출이 좌초될 가능성도 커졌다. 허 회장은 이번 체포 영장 발부 직전, 24일 한국을 찾은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 CEO(최고경영자)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Mario Pascucci)를 만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논의하기도 했다. 양사는 다음날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며, 1년여간 협의한 끝에 맺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가 예정대로 이탈리아에 진출하게 되면 프랑

스, 영국에 이어 유럽 내 3번째 진출국이 된다.

국내 식품기업이 가장 어려워 하는 ‘할랄 시장’ 본격 진출도 차질이 예상된다. SPC그룹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갈라 다리 브라더스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올해 할랄 시장에 1호점을 시작으로 12개국에 진출할 계획이었다.

총수 부재가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의사결정도 올스톱(all stop)할 수밖에 없다. SPC합립의 경우, 미국 등 현지 제조 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고, 파리크라산도 미국에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SPC그룹 전반의 이미지가 추락,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SPC그룹은 허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및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비롯해 연이은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로 곤욕을 치러왔다.

김유연 기자 kyy0907@



‘푸바오’ 중국 가는 날… 6000여명 빛속 ‘눈물로 배웅’

분, 에버랜드 장미원 앞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6000여 명의 팬들이 함께해 눈물로 푸바오를 배웅했다. 에버랜드는 고객 응원 메시지를 유채꽃 모양 디자인에 담아 꽃길을 마련했다. 푸바오는 반도체 수송에 이용되는 특수 무전동 차량에 탑승, 11시께 에버랜드를 떠나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푸바오가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쓰촨성 선수핑 기지 도착까지 모든 과정에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한다. 강 사육사는 전날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푸바오의 배웅 길에 동행해 팬들의 심금을 또 한 번 울렸다.

국내 최초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영원한 아기판다’ 푸바오가 3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1354일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푸바오가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쓰촨성 선수핑 기지 도착까지 모든 과정에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한다. 강 사육사는 전날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푸바오의 배웅 길에 동행해 팬들의 심금을 또 한 번 울렸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위스키, 족발·과메기와 찰떡궁합이죠”

위스키 워너 ⑥

성중용 디아지오 바 원장

한식과 잘 어울려 위스키 시장 낙관
‘양보단 질’ 음주문화 정착도 한몫

“위스키, 족발·과메기와 함께 먹으면 일품입니다.”

성중용 디아지오 바 아카데미 원장은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위스키는 한국 음식과의 외로 잘 어울리는 주종”이라며 “한국에서 위스키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성 원장은 디아지오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중 ‘조니워커’는 족발, 삼겹살 등 고기류에 잘 맞고, ‘탈리스커’는 과메기, 굴 등 해산물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음식과 페어링(조합)을 잘해 위스키를 즐기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일명 ‘바텐더들의 스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프리미엄 주류 시장에서 인정받는 유명인사다. 디아지오 합류 전에는 서울신라호텔 칵테일바에서 일



성중용 디아지오 바 원장이 3일 서울 강남구 더 바비어 애드랩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했고 ‘위스키 수첩’, ‘명주 수첩’ 등의 책도 출간했다. 현재는 디아지오의 브랜드 앰배서더(대사)로 활동 중이다. 바텐딩 전문가인 그는 지난해부터 국내 주류시장에 대세로 부상한 ‘믹솔로지(Mixology: 술을 섞어 마시는 문화)’ 열풍이 내심 반가웠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믹솔로지 트렌드를 보며 ‘드디어 바, 바텐더, 주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믹솔로지를 즐기는 소비자는 오감만족 경험을 하는 동시에 위스키 저변을 넓히는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위스키 선호 현상으로 우리나라 술 문화가 ‘더 많이’ 보다는 ‘더 잘’ 마시는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성 원장은 “자신 이 마시는 술을 제대로 알고 싶고 존중하는 형태로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다”면서 “나만의 하이볼, 칵테일을 만드는 이들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위스키가 이미 하향세로 접어들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지나친 우려”라고 했다. 성 원장은 “주류전문 시장조사기관 IWSR은 한국 주류 시장 내 위스키 카테고리 2022~2027년 연평균 성장률을 약 6%로 예상한다”며 “이는 국내 전체 주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스키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위스키 시장의 성장세 덕에 ‘파인 드링킹(Fine Drinking: 고급 음주문화)’ 시장이 열렸다”며 “앞으로 고급 주류와 ‘푸드 페어링’ 문화가 더욱 발전해, 위스키를 넘어 데킬라 등 프리미엄 스피릿 성장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y42@

커피 내리고 파스타 볶고… 로봇이 식음료 조리·세팅

가보니 2024 푸드 페스타

삼성웰스토리, aT센터서 개최

“로봇이 볶은 파스타 먹고, AI(인공지능)가 추출한 커피 한잔…꿈 아닌 현실입니다.”

3일 단체급식·식음서비스 업체 삼성웰스토리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24 푸드 페스타’ 행사장에 들어서니,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 조리로봇이 눈에 들어왔다. 이 조리로봇은 국내 푸드테크 기업 크레오코리아가 제작, 브랜드명은 ‘에이트 키친(Eight Kitchen)’이다. 조리로봇은 ‘특수코팅 자동회전 워’를 이리저리 돌리며 파스타면을 볶더니 따뜻한 한 끼를 똑딱 만들어낸다. 로봇은 완성한 파스타를 그릇까지 옮겨 담았다. 요리 후 세척 작업도 스스로 하기에 음식 조리 전 과정에서 사람의 손은 거의 필요없었다.

이번엔 거대한 드럼통을 담은 조리기가 보였다. 친환경 인덕션 주방기기 전문기업 그리첸의 ‘자동 볶음솥’이다. 이 솥 또한 가동 시 기계에 달린 조리용 삽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음식을 골고루 볶는다. 온도 조절이 가능해 강불에서 볶다가 약불로 마무리하는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다.

행사장 한 켠에서는 또 다른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로봇바리스타 기업인 플레토로보틱스(Folletto Robotics)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초콜릿 라떼 등 다양한 커피 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을 선보였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자, 로봇팔이 커피 원액을 추출하고 물과 얼음을 추가해 ‘아이스 아메



로봇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웰스토리

리카노’를 금새 만들었다. 플레토로보틱스 관계자는 “바리스타로봇은 AI를 탑재해 날씨나 환경에 맞춰 원두의 추출 방식을 바꾼다”며 “인간바리스타처럼 커피 머신을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외식 매장이나 단체급식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과 서빙로봇 등 각종 푸드테크(Food Tech) 서비스를 만날 수 있었다.

정해진 삼성웰스토리 사장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미래 식음 시장 트렌드로 △푸드테크 솔루션·운영 효율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지속가능성 △헬스케어 관점의 상품과 식음 모델 △고객 식음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맞춤형 솔루션 4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푸드 페스타는 식음 업계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교류의 장이자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푸드 페스타는 삼성웰스토리가 2017년부터 시작한 B2B(기업 간 거래)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공간을 지난해보다 2배 확장하고, 고객사는 물론 일반인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4일까지 이어진다.

김지영 기자 kiy42@

힘빠졌던 삼성전자…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 ‘뚝’

유가증권시장 기업 작년 실적

매출 소폭 증가에도 순익 40% ↓

삼성 제외엔 감소폭 대폭 줄어

반도체 회복… 1분기 반등 기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릿수 조 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부진 영향이 컸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이 올해 다시 만행 노릇을 할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부진에 ‘발목’ = 3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96사 중 615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기준 영업이익은 24.48% 감소한 123조83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39.96% 줄어든 80조9074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4% 소폭 증가한 2825조16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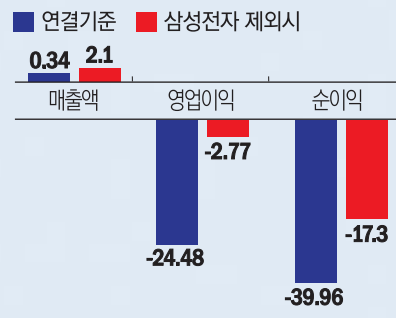


코스피 상장사 결산실적
(단위: 억원)

	2022년	2023년
매출액	2815조7130	2825조1607
영업이익	163조9821	123조8332
순이익	134조7622	80조9074

※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실적 증감률(단위: %)



2.86%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의 부진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삼성전자(연결기준매출액비중9.2%)를 제외한 경우 전체 기업의 실적 부진 폭이 줄어들었다. 삼성전자제외연결기준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영업이익(-2.77%)과 순이익(-17.3%)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그 폭을 크게 줄였다.

개별재무제표로 보더라도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5% 감소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0.86%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44.96%→-9.7%)과 순이익(22.23%→38%)도 삼성전자 제외 실적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6조6000

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43조4000억 원) 대비 85% 급감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밀도는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17개 업종 중 건설업(19.81%), 운수장비(15.72%) 등 9개 업종의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의료정밀(-51.6%), 운수장고업(-9.75%) 등 8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했다. 운수장비(76.87%), 비금속광물(32.31%) 등 5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87.06%), 운수장고업(-61.61%) 등 12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연결기준 금융업(41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23%,

5.54% 감소했다. 보험(영업이익 -6.71%, 순이익 -12.22%)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했다.

분석대상기업 615사 중 연결기준으로 458사(74.47%)가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469사) 대비 11사 감소한 것이다. 적자기업은 157사(25.53%)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12.78%로 전년 말 대비 0.11%포인트(p) 증가했다.

코스닥 기업들의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감소했다. 연결기준 12월 결산법인 1261사 중 1146사의 지난해매출액(260조4556억 원)은 전년 대비 1.2% 늘었다. 영업이익(9조4077억 원)과 순이익(3조5845억 원)은 각각 35.41%, 54.6% 감소했다.

◇장밋빛 반도체…1분기 ‘반등’ 기대= 1분기부터는 상장사들이 실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진의 골이 깊었던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의 ‘V자’ 회복이 기대된다. 금융정보업체에 프랭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곳의 전망치(컨센서스)가 있는 코스피상장사 171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보험업 제외)는 전년 대비 39.8% 증가한 30조92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를 현대차에 빼앗긴 삼성전자는 1분기부터 왕좌 타이틀 탈환에 나선다.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액 72조6636억 원, 영업이익 5조1971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 전 컨센서스보다 각각 1.6%, 11% 늘어난 금액이다. 영업이익은 1년 전 6400억 원과 비교해도 8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5일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폭은 더 크고, 빠르다. 지난해 1분기 영업적자 3조4023억 원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1조47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 346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손민지 기자 handmin@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뉴 하나 딜링룸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위원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현호 기자 hyunho@

‘뉴 하나 딜링룸 2.0시대’ 연다 하나銀 “국내시장 넘어 무한 성장”

을지로 ‘하나 인피니티 서울’ 오픈
24시간 트레이딩 업무환경 조성
함영주 “자본·금융산업 발전 최선”

하나은행이 3일 을지로 본점에 도전과 혁신의 ‘뉴 하나 딜링룸 2.0 시대’를 열어갈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다.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4~5층에 새롭게 오픈한 하나 인피니티 서울은 총 2096㎡(약 634평), 126석의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이다. 외국환·파생·증권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을 선도해 온 하나은행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확장’을 통해 무한히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모든 물리PC의 서버룸 배치 및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 △PC 리모트 기능 및 스마트 터치 키보드 도입 △전 좌석 모션 데스크 설치 등 24시간 트레이딩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 최적화된 스마트 딜링 플랫폼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인피니티 서울 개관식에서 24시간 글로벌 FX 플랫폼 구

축을 통한 외국 기업 및 투자기관의 원화 투자 수요 발굴 확대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뉴 하나 딜링룸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하나은행은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과 원달러 거래를 체결하는 등 차별화된 외환 업무 역량과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반기 영국 런던에 약 1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자금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향후 서울·싱가포르·뉴욕 등을 잇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 외국기업과 투자기관의 원화 수요를 적극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신축 딜링룸 개관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24시간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환경 구축을 통해 하나은행 최대 강점인 ‘외환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FX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외국인 원화투자 서비스 확대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전문·독립성 미흡… “획일적 선임 탈피해야”

● K-사외이사 보고서

③ 거센 여풍… 한계는 <끝>

“다양성이 비즈니스에 주는 효과는 명확하다. 이사회들의 다양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안나 막스(Anna Marks)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의장은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글로벌 관점’ 보고서를 통해 다양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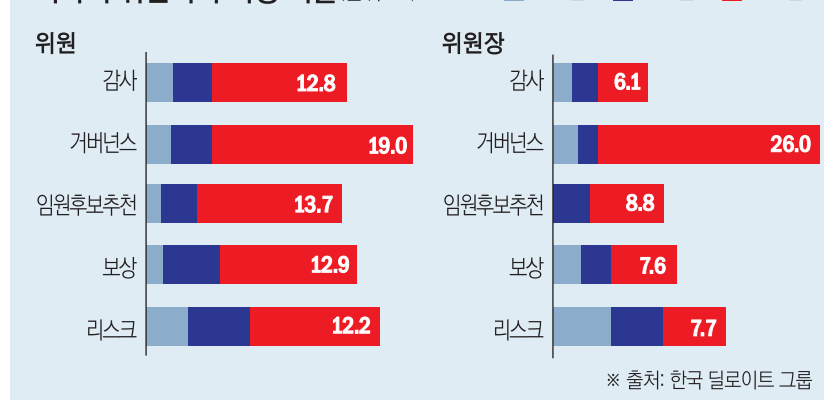
국내 금융사들과 대기업들도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만 상장사들의 이사회가 여풍(女風)으로 구성원은 다양해졌어도, 사외이사 핵심 기능인 전문성과 독립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KB·신한·우리·하나금융) 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여성 비중은 지난해 23.3%(7명)에서 올해 31.2%(10명)로 높아졌다.

KB금융지주는 지난 달 22일 사외이사인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화제가 됐다. KB금융지주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이다. 이어 신한금융지주는 같은 달 26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인 윤재원 흥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2010년 전성빈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내 금융권 최초 여성 이사회 의장을 맡은 지 14년 만이다.

여성 이사 선임은 게임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이사회 5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이사회 위원회의 여성 비율(단위: %)



※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양성 높으면 재무성과도 월등
거버넌스·경영진 감독 효과 제고
여성 비중 늘었지만 ‘천편일률’
“글로벌 진출 많아 더 신경써야”

외국인 사외이사를 영입한 곳도 있다. 네이버는 이 사무엘 인다우어스 창업자를 사외이사로 앉혔다. 현대모비스는 케네스 위텍 텐스토렌트 최고전략책임자(COO)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AMD, 테슬라, 구글 등에서 활동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전문가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스페인 국적의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여성, 또는 외국인 이사 선임에 나서며 다양성 제고에 힘쓰는 중이다. 2021년에는 현대차 최초 여성 사외이사로 이지운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현재도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1974년생으로 현대차 이사회 구성원 중 가장 젊은 인물이기도 하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여성의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 글로벌 하지 않고 천편일률로 사외이사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직 현실”이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에서 많이 권장하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해 지배주주 중심의 획일적인 선임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가져올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이사회들의 다양성을 확대하면 기업 거버넌스 전반을 개선하고,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효과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항상 보는 투자 지표 중 하나가 이사회 다양성인데,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등도 평가한다”며 “요새는 국내 기업도 글로벌 진출이 많아 투자를 받으려면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자산규모 상위 5개사〉

〈작년 말〉

저축銀 PF대출 연체액 2.6배 ‘쑥’… 2차 펀드 조성 ‘속도’

저축은행중앙회 내주 논의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2차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내 펀드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PF 시장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산 규모 상위 저축은행들의 연체금액이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등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르면 내주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가 큰 저축은행 등을 소집해 회의를 열어 2차 펀드 가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는 부실채권 정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출시한 펀드다. PF 사업장 규모, 특성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통한 투자, 펀드 내 부실채권 매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9월 말 1차로 조성한 'PF 부실

채권 9월 조성 펀드 330억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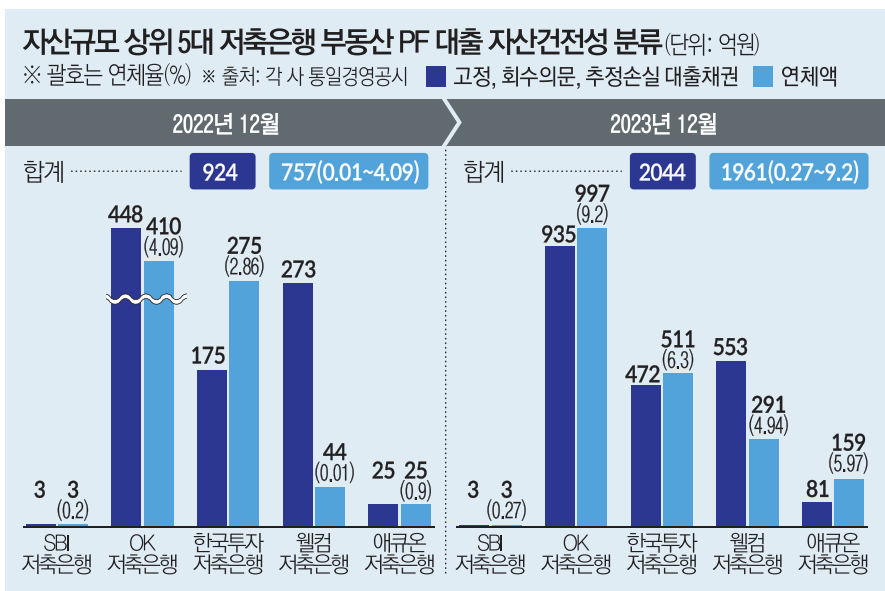
부실채권 규모는 12월 2044억

2차 펀드 600억~700억 계획

정상화 지원 시급… 상반기 조성

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 330억 원은 지난달 말 총 5개 사업장에 전액 집행 완료됐다. 1차에서는 중앙회와 저축은행 10개사(BNK·IBK·KB·NH·OK·신한·우리금융·웰컴·하나·한국투자)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중앙회가 곧바로 2차 펀드 조성에 착수한 것은 저축은행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 자산규모 상위 5개사(SBI·OK·한국투자·웰컴·애뮤은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61억 원으로, 전년 동기(757억 원) 대비 2.6배가량 늘었다. 5개사의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대출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044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년 말 924억 원과 비교했을 때 2.2배 증가했다.

연체율 범위는 0.27~9.20%로, 같은 기간 0.01~4.09%에서 대폭 상승했다. 그나마 상위사가 이정도 수준이다. 업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6.94%로, 전년 동기(2.05%)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고 평가하는 배경이다.

2차 펀드의 총 규모는 600억~700억 원 가량으로, 1차 펀드와 합쳐서 약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79개

사 저축은행이 한 번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닐 수 있다. 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이 (2차 펀드에) 다 참여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은 잡았다"면서도 "펀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한 만큼 한 번에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정도에 걸쳐 결성하고 운용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500억 원 규모로 1차 펀드처럼 일부 저축은행부터 2차 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이후에 나머지 170억~200억 원가량은 '3차 펀드'로 단계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이 우선적으로 출자에 나서 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79개의 자산 성격을 따져서 그룹핑(grouping)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4월 초 2차 펀드 조성 방안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고 상반기 중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이병래 “시니어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 질환도 실손 보장”

손보험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인구변화 대응 등 '4대 전략' 발표

“위기 발판으로 새 도약 이룰 것”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저출생 관련 보장도 강화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확충하겠다.”

이병래<사진>손해보험협회장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요양 돌봄 상품 및 맞춤형 상품을 확대한다.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어린이 친화상품도 도입한다.

이병래 회장은 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미래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이 제시한 미래 핵심 전략은 네 가지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시대 보험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보험서비스 확립·신뢰 제고 등이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 상품 전략을 마련한다.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요양·돌봄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저출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그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과 연계해 비급여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의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보장 기준을 도입한다.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료·비금융데이터 등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서비스 개발의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가입·심사·보험금 청구 등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활용을 활성화한다.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조만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있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작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며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jsw@

중소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확산

기업銀, 강소기업 등 5% 감면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수수료 5%를 감면한다.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금리인하 폭도 ‘깜깜이’… ‘300조 기술금융’ 10년만에 대수술

금융위 ‘개선방안 간담회’

평가등급 사전 공개시 허가 취소

기업 현지조사·세부평가 의무화

앞으로 기술신용 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깜깜이’였던 은행의 기술금융 금리 인하 폭도 밝히도록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은행이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은행 자체 평가 혹은 외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의뢰해 결과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기술평가등급은 T1부터 T10까지 10개로 나뉘고 T6등급 이상 평가를 받으면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술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04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 4000억 원)의 29%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기술금융 도입 후 10년간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

편에 나선 배경이다.

우선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한다. 평가사에는 기업·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한다. 인력·자원 부족을 이유로 관행이 된 비대면 평가를 금지한 것. 평가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기업이 기술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명시해야 한다. 은행은 기술등급에 따라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지만, 실제 금리가 얼마나 낮아져 실행됐는지 확인이 어렵

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은행이 기술등급별 금리인하 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출 실행 후 최초금리와 기술금융 우대금리, 실행금리 등 금리와 대출잔액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은행의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는 ‘테크 평가’에 가점을 줘 은행의 금리 인하, 신용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등급별로 금리를 더 크게 인하는 은행에 가점을 부여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취급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100점 중 20점에서 상향 조정해 담보위주의 여신 관행을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삼성생명, 고객사 10% 할인

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제도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하면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정상원 기자 j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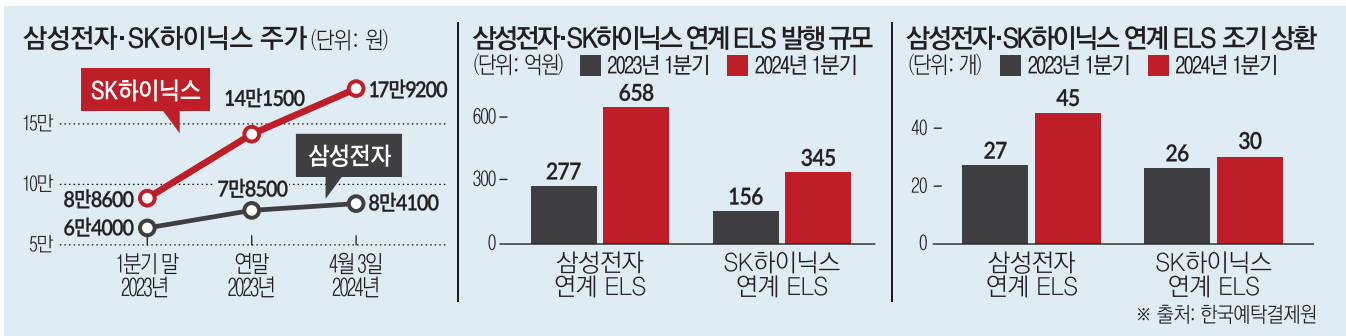
8만전자·17만닉스에… ELS발행·조기상환 ‘웃음꽃’

1분기 삼성전자 기초지수 ELS
49개 종목 모두 발행금액 채워
SK하이닉스는 발행액 121% ↑
침체됐던 ELS시장 활기 기대

회사원 김 모(31) 씨는 최근 삼성전자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에 3500만 원을 추가 투자했다. 이 중 2500만 원은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주가 8만 원)에 오르면서 조기 상환한 자금이다.

그는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일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해 녹인(Knock In·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자산 ELS투자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덕분에 짧은 기간에 잇따라 상환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어서다. 이상



품은 만기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 놓은 조기 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약속한 수익과 함께 자동 상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를 기초지수로 하는 ELS는 49개, 총 658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지난해 1분기 27개, 총 277억 원 대비 금액 면에서 137.54% 늘었다. 지난해 1분기 4개 종목에서 완판 실패 사례가 나타났으나 올해 1분기에는 49개 종목 모두가 발행금액을 채웠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SK하

이닉스가 기초지수로 포함된 ELS는 올해 1분기 45개 종목이 345억 원 규모로 신규발행됐다. 전년 동기 16개, 156억 원 대비 121.15% 증가했다.

ELS 조기상환도 늘었다. 1분기 조기 상환된 삼성전자 기초지수 포함 ELS는 45개로, 지난해 1분기(27개) 대비 증가했다. SK하이닉스 기초지수 포함 ELS는 30개가 조기 상환돼 전년 동기(26개) 대비 다소 늘었다.

이러한 ELS 발행과 조기상환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높은 주가 상승을 시

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분기 말 주당 6만4000원이었던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2년 3개월 만에 8만 원을 돌파했고, 2일 장중 8만5000 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 8만 원대였던 SK하이닉스 역시 18만 원 대로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자산 ELS 조기 상환액이 최근 급증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ELS는 만기가 3년이라고 해도 ‘가입 6개월 시점에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일찍 돌려준다’는 식의 조건을 걸고

조기 상환을 해주는데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를 달성하는 상품이 많아진 것이다.

홍콩항생지수(H지수) ELS대량손실 사태로 꺼져가던 시장에 훈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공모·사모)의 발행 금액은 318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5085억 원) 대비 37.3% 감소했다. 발행 종목 수도 295개에서 228개로 22.7% 줄었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과 은행권의 판매 중단 등으로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ELS는 일반적으로 만기 내에 조기 상환 기회가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까지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주식 처럼 매매할 수 없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요청으로 중도 상환할 경우 청산 비용이 드는 만큼 만기까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증권사 총당부채 2兆 돌파… 부동산PF 부담 쑥

60곳 작년말 기준 전년比 26% ↑
채무보증 2배 뛰며 증가 ‘부채질’
부동산PF 회복 더뎠 실적 빨간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증권사들의 총당부채가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 전반의 금융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증권사의 재무 부담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사 60곳의 지난해 말 기준 총당부채는 2조234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1%(4624억 원) 증가했다. 총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지출, 손실에 대비해

마리 빼둔 금액이다.

부채가 늘어난 증권사 중 잔액 규모로 보면 KB증권이 같은 기간 55.9% 늘어난 3502억 원으로 가장 컸다. 유안타증권이 1932억 원으로 17.1%, 한국투자증권은 1800억 원으로 201.9% 증가했다. 하나증권은 1556억 원으로 519.7% 급증했고, 메리츠증권은 1372억 원으로 69.9% 늘어났다.

이는 총당부채 중에서도 채무보증이 늘어난 영향이다. 채무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걸 의미하는데, 증권사가 다른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규모가 커졌단 의미다. 이들 증권사의 지난해 말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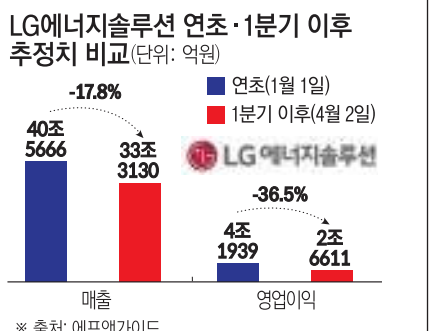
무보증 총당부채는 1조1513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109.2%) 넘게 늘었다.

채무보증이 크게 늘어난 곳은 전체 총당부채도 급증한 곳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이 225.4% 불어난 1708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그다음하나증권이 1491억 원으로 648.5% 폭증했다. KB증권의 채무보증은 1437억 원, 메리츠증권은 1300억 원으로 각각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채무보증총당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PF 시장이 나빠지면서다. 부동산 PF 사업장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증권사의 실적,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효숙 기자 ssook@

“R&D 투자 확대로 캐즘 돌파” 2년전 영광 재현할 수 있을까

기업탐구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청약기록 새로 썼지만
중에 배터리시장 3위로 밀려나
R&D 비용 확대로 돌파구 모색



2022년 1월 27일을 기억하는가. 당시 증시에 관심이 있던 투자자라면 모를 수 없었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상장일이었다.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어였던 LG엔솔은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등 기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차전지의 대표주로 군림하던 LG엔솔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사는 조직을 쪼개 바꾸고 매년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리는 등의 해법으로 위기를 돌파 중이다.

◇‘기록제조기’ LG엔솔,배터리시장서 3위로 추락=기업공개시장에서 LG엔솔은 한마디로 ‘기록 제조기’였다. ‘최초’ ‘최대’ ‘최고’ 타이틀을 모두 달았다. 공모시장에서 12조7500억 원을 조달했으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선 1경 5203조 원의 주문액을 모아 최초로 ‘경’ 단위를 기록했다. 수요예측 경쟁률도 2023대 1을 기록했다. 일반청약도 114조 원이 몰렸다. 아직 이 기록을 깰 회사는 없다.

그러나 2년 만에 IPO의 영광은 사라졌고, 어느새 주가는 공모가(30만 원)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 시장에선 LG엔솔의 위기감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 CATL이 36.8%로 1

위, 2위도 중국 BYD(15.8%)가 위치해 있다. LG엔솔은 13.6%로 3위다.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CATL과 BYD의 지난해 성장률은 40.8%, 57.9%로 집계됐는데, LG엔솔은 33.8%를 기록했다. 저렴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소비자들 이 더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의 LFP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R&D 투자 확대로 ‘캐즘’ 돌파=시장에서는 1분기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LG엔솔은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한 얼티엄셀즈의 미국 테네시주 2공장 양산을 앞두고 있다. 내년 이후 양산이 예상되는 미시간주 3공장, 애리조나주 단독공장,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합작공장, 오하이오주 혼다 합작공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텔란티스 합작공장도 건설 중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AMPC가 1분기 2380억 원에서 4분기 7550억 원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총액 5조1043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LG엔솔의 가장 큰 힘은 R&D다. 지난해 1조373억 원을 투입했다. LG엔솔은 매년 R&D 비용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캐즘(시장 확대 이전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다.

박상민 기자 si2020@

“지금이 빨 때”… 금값 치솟자 펀드차익 노리는 투자자

금 현물가격 1g당 10만4990원
금펀드 최근 한달간 221억 유출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하는 틈을 타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발을 빼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펀드 설정액은 2일 기준 33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366억 원이 빠져나갔다. 최근 금값이 급등했던 한달간 발을 빼는 투자자가 많았다. 최근 한달간 유출된 자금은 221억 원에 달했다.

저가 매수 차원에서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금값이 치솟은 틈을 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게 은행·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들의 설명이다. 특히 금값의 장기 방향성을 고민하며 펀드 환매를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도 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금값은 치솟고 있다.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 이날 1kg 금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일 대비 3.56% 오른 10만4990원에 마감했다. 이는 2014년 3월 거래소에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며, 금 한 돈

(3.75g)을 사려고 해도 40만 원을 넘는 가격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24.70달러(1.09%) 오른 온스당 2281.80달러에 장을 마감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 한때는 2297.9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첫 2300선 돌파에 근접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금펀드 수익률이 단기 금등락을 반복하는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자산배분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

추종지수는 KB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다.

KB운용은 거래소로부터 지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지수 독점적 사용 지위를 보유한다.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월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윤혜원 기자 hwyoon@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첫 월분배금 지급

KB자산운용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첫 분배금으로 105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분배율은 약 1.01%다.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분배락 일인 지난달 28일 시가는 1만305원이었지만 주가가 오르며 전날 기준 종가 1만

415원으로 마감했다. 상장 이후 분배금을 고려한 누적수익률이 5%를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달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콤팩션을 매도하는 위클리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했다.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 꺼지지 않는 ‘4월 위기론’

올들어 폐업신고 총 103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
2월 종합건설업 등록은 78% ↓
대형사, 계열사·금융기관 차입
지방·중소업체는 ‘무방비’ 상태
“주택 수요 진작 등 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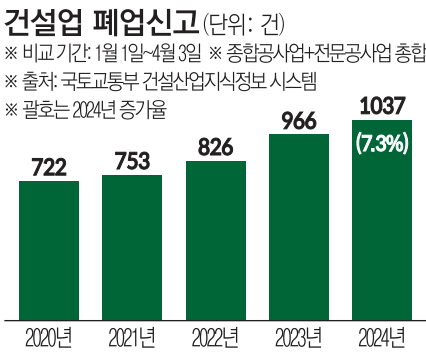
건설업계위기론 불씨가해를 넘겨서도 꺼질 줄 모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계열사 내부와 외부 금융기관의 자금 수혈로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중견 또는 소규모 건설사는 업황 악화 영향을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주택 수요를 늘릴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1월 1일~

4월 3일) 기준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는 총 10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6건과 비교하면 7.3%(71건) 늘어난 수준이다.

업황 악화 영향으로 건설업 폐업 신고와 함께 신규등록 업체도 줄었다. 올해 2월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52건으로 지난해 2월 241건과 비교하면 78% 급감했다.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누적 기준으로 2022년 5146건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1307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폐업 업체는 2022년에 26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18건으로 60% 이상 늘었다. 올해도 2월 기준으로 누적 폐업은 68건으로 지난해 2월 기준 51건보다 33% 더 많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폐업 신고는 부도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악화나 자본금 유지 불가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폐업



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느 경우든 폐업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는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직접 시공보다는 대형 건설사의 물량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방 건설경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더 나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 건설사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공사 계약액 규모만 봐도 대형사와 소규모 건설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에 따르면, 건설기업 규모 ‘상위 1~50위’ 기업 계약액은 31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증가했다. 반면 ‘301~1000위’ 기업 계약액은 5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줄었다. 그 외 소규모 기업은 총 2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감소하는 등 소규모 기업의 일감 감소세가 더 크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역시 쌓여만 간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4874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물량은 전체의 82% 수준인 5만 2918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시장 안팎의 경고음에도 ‘위기론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위기론은 과장돼 묘사된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현상이 온다고 그래도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정부 인식과 별개로 건설업계에선 위기설 조기 진화를 위한 주택 수요진작책 등 정부 대응안 발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주택 때문에 위기론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은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이제 연체율을 보면, 가계 연체율보다 기업 연체율이 높고 또 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금 연체율이 더 높게 나오는 등 리스크가 많은 만큼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취득세 등 세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부동산 위기 선제적 대응… 경기회복 위해 유동성 지원” LH,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나선다

상반기 2조… 하반기도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 원(매입 1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 30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

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대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LH는 오는 9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김현동(왼쪽) SH공사 사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H공사

SH공사·우리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맞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우리은행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SH공사는 우리은행과 ‘SH공사-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

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SH공사와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리츠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현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상생 금융연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역세권 개발 등 더 발전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우리은행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2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액 14.5% 감소 물류센터 시장, 봄은 언제나

올해 2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14.5% 줄었다. 경기 등 규모가 큰 지역의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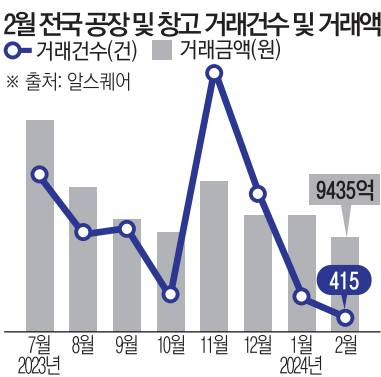
3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전국 공장·창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공장·창고 2월 거래(1일 기준)는 415건, 거래액은 94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액은 전월 대비 14.5% 하락했고, 거래 건수도 4.8% 줄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공장·창고 부진이 전체 거래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 2월 기준 경기지역 공장·창고 거래 규모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거래 건수는 107건, 거래액은

3234억 원이다. 전월보다 각각 3.6%, 18.6% 감소한 수치다.

500억 원 이상 대형 거래는 경기 인천시 마장면 표교리 창고시설(593억 원), 인천 서구 원창동 창고시설 2곳(834억 원, 753억 원) 등 3건에 그쳤다. 경남(876억 원), 경북(695억 원), 대구(435억 원), 대전(156억 원) 등 주요 지방 거래액도 전월보다 각각 36.8%, 24.6%, 31.4%, 59.7% 감소했다.

반면, 인천 지역은 회복세를 보였다. 2월 인천 공장·창고 거래는 17건, 거래액은 1873억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3.3%, 161.1% 늘었다. 이밖에 충남(570억 원), 충북(268억 원) 광주



(144억 원) 등 거래액이 전달보다 각각 62.8%, 57.5%, 58.3% 상승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물류센터 PF 리스크, 높은 저온센터 공실률 등 위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 거래가 저조했다”며 “중국 이커머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국내 이커머스 기업도 물류창고 확보로 맞불을 놓는 등 추후 거래는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 수주

▶1면서 계속

이번 수주로 올 들어 다소 부진했던 해외건설 실적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됐다.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올해 누적 해외수주액은 21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수주로 누적 해외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1억 1000만 달러)의 2배를 넘는 127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400억 달러로, 기간만 놓고 보면 1분기 정도 만에 연간 목표치의 약 32%를 달성한 셈이다.

연내 수주 목표 조기 달성에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올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해외건설에서는 호재로도 작용한다. 대부분 산유국인 중동 국가는 고유가 상황에서

재정 능력이 건설해져 건설 프로젝트 발주 물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아랍코의 경우 2022년 2분기 수익이 2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나자 기존 400억 달러 수준의 설비투자 계획을 500억 달러로 상향 발표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발주처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건설발주가 늘어나게 된다”며 “최근 몇 년간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산유국들은 고유가 지속으로 재정수지 개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발주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갖춰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엔지니어링 인력이 부족한 시점이기엔 과거와 달리 저가 수주 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늘봄학교 한 달, 참여 급증했지만… “질적 제고해야” 지적도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행 한 달만에 약 100곳이 더 늘어 전국 2838개교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도 약 14만명으로 늘었다. 늘봄학교 시행 첫 달 참여 학교와 학생이 크게 늘어나며 점차 정착해가고 있지만, 교원단체 등 일부에서는 “질적 제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하고 있다.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에 나서 “2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약 74%인 14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늘봄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전국 2838개교·학생 14만명 이용
강사도 58% 증가 1만7000여명

전교조 “강사 인원 지역편차 심각”
교사가 강사 역할 분담… 혼란 여전

6175개교(2023년 기준)의 44.4% 수준인 2741개교에서 첫발을 뗐다. 한 달이 지난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이 더 참여해 총 2838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늘봄학교참여학교가 늘면서 학생도 한 달만에 1만4000명이 늘었다. 현재 늘봄학교에 참여 학교의 초1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 초1 학생 참여율이 67.1%에서 74.3%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7197명으로 한달 전 1만900명보다 57.8% 가량 늘어났으며, 이중 18.7%는 희망 교원이라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 한 곳당 배치된 평균 행정 전담인력 수는 1.3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교원단체들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늘봄학

교와 관련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마치 늘봄학교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기존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합친 수치를 이름만 바꿔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는 프로그램 강사 인원이 증가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강사 중 기존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을 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울산, 광주, 충남, 전북 등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지만,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는 교사가 강사로 투입된 비율이 각각 42%, 3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이후 현장 교사들로부터 접수받은 파행 사례도 공개했다. 수도권 모 초등학교에서는 늘봄교사가 구해지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인력을 채용해 기존 교원이 일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전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외부강사가 원칙이고,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여하는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미래세대 위해 나무 함께 심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제79회 식목일을 하루 앞둔 3일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에서 열린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만들기’ 행사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 이수희 강동구청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에 미세먼지 ‘뚝’… 황사는 어찌지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치 기록
건조날씨 탓에 올봄 황사 빈번할 듯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절관리제 기간이 지난 봄철 황사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돼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자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시는 수송·난방·사업장 등 4개 분야 16개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정책은 저공해 미소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사의 친환경 공사장 확대,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도로 청소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141톤, 질소산화물 약 2873톤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22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동일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해 평균 농도는 37% 감소(35→22 $\mu\text{g}/\text{m}^3$)했고, 미세먼지 ‘좋음(15 $\mu\text{g}/\text{m}^3$ 이하)’ 일수도 약 4배(11→42일) 늘었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 국외 영향, 국내 배출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해 농도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다가오는 봄철 기상변화가 심상찮다.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내몽골고원이나 고비사막 일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적어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에도 황사가 전국을 덮치며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까지 치솟은 바 있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로 미세먼지 관리 경보제에 따라 대기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황사가 유입된 상황에서 도로 청소 강화, 배출사업장 관리 등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이미 갖춰져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빈 기자 chaebi@

‘이건희 기증품’ 2200여 점, 전국서 만난다

청주·제주 등 10곳 박물관 상설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기증품 중 2200여 점을 전국 10개 소속 국립 박물관으로 옮겨 상설전시 활용을 대폭 늘린다고 3일 밝혔다.

이관하는 기증품은 서화, 조각, 도자, 공예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 13건 107점을 포함해 총 936건 2254점이고, 이 가운데 석조물은 459건 836점이다.

석조물 중 일부는 현재 청주박물관(102건 203점), 제주박물관(28건 55점), 공주박물관(20건 26점), 대구박물관(2건 5점), 전주박물관(18건 35점) 등

지역 국립박물관의 옥외공간 및 로비에서 지역 특색을 살려서 전시된다. 아울러 청주박물관에 122건 210점, 대구박물관에 141건 255점을 추가 전시하고, 광주박물관도 새롭게 26건 47점을 전시한다.

부여박물관에 전시될 국보 ‘전 논산 청동방울 일괄’은 한국식 청동기 문화를 꽃피운 금강 유역의 청동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지역 국립박물관 상설전시 활용 확대는 기증자의 높은 뜻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에 일조해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이번엔 웃을까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일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며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

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 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제약사 측 변호인

“들러리 참여로 유찰방지했을 뿐
어떠한 이익·수요자 피해 없었다”

항소심에서도 결백 주장 되풀이
한국백신 무죄 판결 영향 주목

들은 프리젠테이션(PT)과 구술 변론을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각각 선임한 로펌은 달랐지만, 이들 변호인 모두 “당초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도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부당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들러리라는 외관만 보면 자칫 부당공동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지

만, 이 사건의 핵심은 전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기성제품에 대한 독점판매 계약이라는 점”이라며 “수의계약 사항이지만, 시간이 걸리니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참여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득이 들러리 입찰을 참여했지만 사업자 이익, 수요자 피해, 가격 상승 등이 없었고 백신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인 한국백신 사건 판결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은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이현 기자 spes@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올해 삼성호암상... 6명 중 4명이 여성

‘과학상’ 미생물학자 헤란 다윈
양자역학 발전 기여 故 남세우
‘공학상’ 이수인, 첫 여성 수상자
‘의학상’ 생물정보학자 피터 박
‘예술상’에 부커상 소설가 한강
‘사회봉사상’ 제라딘 라이언 수녀



왼쪽부터 헤란 다윈 미국 뉴욕대 교수, 고(故) 남세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 이수인 미국 워싱턴대 교수, 피터 박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 소설가 한강, 제라딘 라이언 수녀. 사진제공 호암재단

상금 3억...내달 31일 시상식

호암재단은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54) 등 6명이 선정됐다고 호암재단이 3일 밝혔다. 삼성호암상은 학술, 예술, 사회봉사 등 분야에서 업적을 세운 이들을 시상한다.

올해 수상자는 헤란 다윈(55) 미국 뉴욕대 교수(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고(故) 남세우(54)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이수인(44) 미국 워싱턴대 교수(공학상), 피터 박(53)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의학상), 소설가 한강(예술상), 제라딘 라이언(76) 수녀(사회봉사상)다.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46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와 외국인 석학 6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4개월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 6명 중 여성이 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수상자가 나왔다.

헤란 다윈 교수는 결핵 발생과 인체 감염 기전을 밝혀온 세계적 미생물학자다. 인간 등 일반 생물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 시스템이 결핵균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 결핵을 포함한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고 남세우 연구원은 세계 최고 효율의 단일광자 검출기를 개발해 양자역학 분야의 오랜 논쟁이었던 ‘벨 부등식’의 실험적 위배 증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양자역학

과양자정보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심사가 진행되던 올 1월 작고했다.

호암공학상 최초 여성 수상자인 이수인 교수는 인공지능(AI)의 판단·예측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 가능한 AI’ 분야에서 AI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론을 개발한 AI 전문가다.

의학상을 받은 피터 박 교수는 생물정보학 분야 권위자다. 세포의 방대한 DNA 유전 정보에 대한 컴퓨터 분석법을 개발해 암 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에 명단을 올렸다.

소설가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영국 부커상을 받은 소설 ‘채식주의자’ 등 여러 작품에서 한국 현대사의 고통과 슬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을 특유의 날카롭고

섬세한 시선과 독특한 작법으로 처리해 미적 승화로까지 끌어냈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언 수녀는 1975년 한국 입국 후 의료봉사를 시작해 전남 목포 최초의 장애인 복지시설 ‘생명의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50여년간 목포 지역 장애인과 가족을 돌보며 인류애를 보여줬다고 재단은 전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내달 31일 열린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상을 통해 학술·예술 및 사회 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한국계 인사를 포상해 왔다. 올해까지 총 176명에게 상금 343억 원을 수여했다.

송영록 기자 syr@

DL이앤씨, 신임 대표이사에 서영재 前 LG전자 전무 내정

DL이앤씨는 신임 대표이사에 서영재<사진> 전 LG전자 전무를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DL이앤씨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영재 전 LG전자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서 신임 대표 후보자는 다음 달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서 후보자는 1991년 LG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2011년 LG전자 HE사업본부 스마트사업담당 상무로 임명된 뒤 지난 2022년 BS사업본부 IT사업부장(전무)직을 맡는 등 10년 이상 LG전자를 이끌었다. 1967년생으로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MBA를 졸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인적분할 4년 차를 맞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서영재 사내이사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서의 풍부한 경력과 사업가로서 성공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DL이앤씨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선없는 올레드 TV’ LG어워즈 고객감동 대상

총 98팀 724명 수상

“단지 최초·최고의 기술, 제품,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를 넘어선 경험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느껴볼 때 고객은 차별적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LG 어워즈가 추구하는 혁신입니다.”

3일 LG그룹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2024 LG 어워즈(Awards)’에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LG 어워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제품,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구광모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고객 심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에는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구 회장은 취임 후 경영화두로 고객가치를 제시하고, 해마다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LG는 2019년부터 한 해 동안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어 낸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LG 어워즈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LG 어워즈에서는 최고상인 고객감동 대상 4팀을 비롯해 고객 만족상 46팀, 고객 공감상 48팀 등 총 98팀, 724명이 수상했다. LG는 출품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적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철저히 고객의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고상을 선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객 감동 대상을 수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뒷줄 왼쪽 첫 번째) ㈜LG 대표가 고객 대표,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G

상한 LG전자의 LG 시그니처 올레드 M 개발팀이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은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線)을 없앤 무선 올레드 TV다. 이 밖에 친환경 재활용 필름 신소재를 개발한 LG화학팀과 3단계 위생 가습기 LG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를 기획한 LG전자팀이 단체 분야 고객감동 대상을 수상했고, 필수난임 치료제 공

급중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최성덕 팀장이 개인 분야 고객 감동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6회를 맞은 LG 어워즈는 지금까지 405개 팀, 330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LG의 고객가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송영록 기자 syr@

힐튼, 한국·일본지역대표 조셉 카이탈라 사장 선임

힐튼이 한국·일본·마이크로네시아 지역 부사장 겸 대표로 조셉 카이탈라<사진>를 임명했다.



3일 힐튼에 따르면 카이탈라 대표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호텔 업계 베테랑이다. 2018년 중국 북부 지역 운영 부사장으로 힐튼에 입사해 힐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힐튼 호텔 포트폴리오를 28개에서 51개로 성장시켰으며, 서비스 가치 증대 및 고객 만족도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했다.

2018년 힐튼에 합류하기 전 카이탈라 대표는 마커스 호텔 리조트의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역임했으며, 그 전에는 하얏트 호텔에서 30년간 다양한 글로벌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캠코 창립 62주년...권남주 사장 “민생경제 안정 앞장설 것”

캠코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창립 62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권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업무 분야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 ESG경영을 지속 발전시키고 모든 사업 부문에서 더욱 엄격한 준법정신과 차별화된 윤리의식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사진제공 캠코

부음

▲장석환(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씨 별세, 민희경(CJ제일제당 부사장) 씨 남편상, 장필호·현주 씨 부친상, 장대한·유한 씨 동생상, 장영은 씨 오빠상, 김량 씨 처남상 = 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02-3010-2000

▲손혜환 씨 별세, 손민석(계인스빌 한인 교회 목사)·민경(스피나시스템즈 경영본부장)·민주 씨 부친상, 신미성 씨 시

부상, 최훈규(스피나시스템즈 대표이사)·박구용(현대건설 기술연구위원장) 씨 장인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2-3010-2000

▲김해석 씨 별세, 김옥순 씨 남편상, 김민천(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종문 씨 부친상 = 3일, 부산 봉생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5일 오전 7시, 051-638-4411

▲김재순 씨 별세, 이은정(전 가톨릭대

의대 교수)·영식(서울힐치과의원 원장)·영훈(전 원동투자그룹 전무) 씨 모친상, 유영섭(전 서울대 의대 교수)·이무섭(전 충북대 의대 교수) 씨 장모상, 이선희(전 신한대 교수) 씨 시모상, 이종현 씨 조모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20분, 장지 국립대 전현충원, 02-3010-2000

▲강경만 씨 별세, 우순자 씨 남편상, 강혜정·혜영(연세대 약학대학장) 씨 부친상, 김학중·김상용(고려대 경영대학

장) 씨 장인상 = 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5일 낮 12시 40분, 02-2227-7580

▲양춘자 씨 별세, 박인철(무송지오씨 대표) 씨 모친상 = 2일, 광주 스키장 장례식장 102호, 발인 5일 오전 8시, 062-951-1004

▲이명수 씨 별세, 이병노(전남 담양군수) 씨 부친상 = 3일, 담양제일장례식장 202호, 발인 7일 낮 12시, 061-382-1111

인사

◆인사혁신처 ◇서기관(4급) 승진 △처장실 정창화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 혁신담당관실 이호진 △인사조직과 김정은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정승진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김동일

◆금융투자협회 ◇집행임원 신규 선임 △자율규제본부장(상무) 정형규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감사실장 김상운 △기획조정실장 김용욱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부실장 박정택 △"기획조정2부실장 이승규 △사무처장 박인철 △대의협력처장 이상길 △인재경영실장 윤영남 △인재경영실 인재개발센터 소장 김혜련 △" " 부소장 소사라 △의학도서관장 윤미진 <세브란스병원> △병원장 이강영 <재활병원> △원장 조성래 △진료부장 이상철

마감 후

조 남 호
중소중견부 부장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반드시 위한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절박한 심정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란 최후 카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와 조문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과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의 불명확함이다.

이를 두고 정운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

현재 달려간 ‘절박한 中企人들’

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 지 40여 일 만이다.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뒤서라도 유예해 보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심경이 담겼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준비에 매몰된 거대야당은 이를 외면했다.

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런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결코 중대재해법 회피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업주가 직원이 다치는 걸 원하겠느냐”는 한 중소기업인의 호소처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여전한 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중소기업계는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리란 보장도 없으니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들이 현재를 찾아가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spdran@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명인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행동해라.”

미국 독립영화 감독 로버트 다우니 1세의 아들로 태어난 배우. 5살에 아버지가 감독한 ‘파운드’에 출연하면서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변화무쌍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아이언 맨’의 주연(토니 스타크)을 맡았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65~.

☆ 고사성어 / 월하노인(月下老人)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는 중매인을 일컫는다. 진서(晉書) 예술전(藝術傳)이 원전. 위고(韋固)가 송성(宋城) 지금의 허난성)의 숙소에 묵을 때 달빛 아래에서 책을 뒤적이던 한 노인[月下老人]이 “이 책에 적힌 남녀를 자루 안의 빨간 끈(赤繩)으로 묶어 놓으면 반드시 맺어진다”고 했다. 위고가 자신의 배필은 어디 있냐고 묻자 “송성 북쪽에 채소 파는 노파가 안고 있는 아이”라고 알려줬다. 14년 뒤 상주(相州)의 관리가 된 위고

가 그 고을 태수의 딸과 혼인한 뒤 생각난 월하노인이 한 말을 전해주자 부인이 놀라 말했다. “아버지가 송성에서 벼슬하시다가 돌아가시자 유모가 채소장사를 하면서 길러주었는데 지금의 태수께서 아이가 없자 저를 양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 시사상식 / 북톡(BookTok)

틱톡 플랫폼 안에 있는 책 추천 커뮤니티이자 글로벌 챌린지이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해시태그 #북톡을 통해 독서 관련 영상, 사진, 글쓰기 등을 공유하며 책 추천, 서평, 독서 인증, 독서 토론 등을 기록하고 있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책 소개, 독후감 공유, 짤방 등이 주를 이룬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무동 태우다

사당패의 놀이에서 유래한 말. 사람 어깨 위에 올라서서 아랫사람이 춤추는 대로 따라 추는 여장한 사내아이를 부르는 ‘무동(舞童)’에서 왔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박승찬의
마·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중국, 독자적 AI생태계 구축의지
AI굴기 두고 G2 갈등 격화 예고

미중 간 경제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AI 산업의 경쟁과 대립이 AI 기술진화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작년 대화형 AI 서비스 프로그램인 오픈AI의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이두는 AI챗봇인 ‘어니봇(文心一言)’을 출시했다. 그 외 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 등 대표적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투어 생성형 AI경쟁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 올해 초 오픈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소라(Sora)’를 출시하자 다급해진 중국은 부랴부랴 생성형 AI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전국에 방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챗GPT와 소라 같은 범용인공지능(AGI)과 거대언어모델(LLM) 같은 ‘질적 AI’ 혹은 ‘강 AI(strong AI)’ 영역에서 미중 간 AI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미국에 뒤처진 질적 AI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AI기술 경쟁력 美 이어 세계 2위

지난달 개최된 중국 최대의 정치이벤트인 양회기간 중국 AI산업육성과 경쟁력 제고가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다. 국경자문기구인 정협 회의에서는 AGI와 LLM 산업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향후 급변하는 AI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제정 등 다양한 AI산업육성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리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도 AI를 3차례 언급하며 중국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인대 최초로 총리가 ‘AI플러스 행동(人工智能+行動)’이라는 새로운 국가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에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혹은 시너지 창출을 정부가 직접 나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산업·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관련 전후방산업 및 기술역량을 제고시켜 미래 첨단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제조강국 및 디지털차이나 건설을 가속화시켜 미국제재에 대응하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정책은 인터넷 플러스(2015년), 스마트 플러스(2019년), 로봇 플러스(2023년) 그리고 올해 발표된 AI 플러스까지 총 4개 정도다.

AI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도로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중국제조 2025’ 전략과 그 궤를 같이한다. 2017년 이후 AI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다



중국의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가 지난달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4기 2차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AI 플러스 행동’이라는 새 국가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양한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중국의 AI기술 경쟁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유럽·한국·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기술 최근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AI 학습지능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0.9년으로 유럽·한국·일본보다 앞서있다. 또한 2022년 기준 AI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에서 중국(92.5%)은 미국(100%) 다음 2위로 유럽(92.4%)·한국(88.9%)·일본(86.2%)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美 AI이니셔티브 대응해 마련

중국 AI산업의 굴기는 결국 미국의 군사안보·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019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AI 주도권 장악을 위해 ‘미국 AI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 대응해 자국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AI분야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AI플러스 행동전략은 미국 AI이니셔티브에 대응해 만들어진 중장기적 국가정책방향이다.

중국은 안전인식기술 등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적으로 모방해서 구현한 약성 AI 혹은 약AI(Weak AI) 영역에서 미국을 추월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우수한 IT인재와 방대한 데이터, 내수 시장 그리고 정부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 처음 등장한 중국 AI플러스 행동의 구체적인 함의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점차 심화되는 미국의 중국 AI반도체 제재에 대한 독자적인 AI 집 개발 가속화와 AI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10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나 고사양 AI칩의 중국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간접 우회수출통로 차단 및 저사양의 AI칩까지 제재하는 추가 규제도 발

표하며 중국 AI굴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질적 AI기술과 산업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결국 독자생태계 구축과 기술자립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막힌 A100, H100 등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중국산 AI칩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AI플러스 행동의 핵심 목적이다.

美, 동맹국 제재 동참 요구 강화할 듯

둘째, AI와 기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경제·디지털차이나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제조업 영역을 넘어 정부서비스·의료·교통·물류·농업 등 실물경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발전보고서 2023’에 의하면,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가 2012년 11조 위안(약 2049조 원·GDP 비중 21.6%)에서 2022년 50조 2000억 위안(약 9352조 원·GDP 비중 41.5%)으로 증가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중요소생산성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AI 기술경쟁력의 성장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미중 간 AI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상황에서 중국 AI플러스 행동은 미중 간 충돌의 새로운 좌표로 자리잡을 것이다. 미국은 미래전략산업과 군사·경제 안보 판도를 좌우할 반도체와 AI 중심의 대중국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AI굴기를 막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더욱 강력히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관건은 우리 AI핵심경쟁력을 어떻게 배가시킬 것인가이다. 미중 간 AI경쟁에서 우리가 선점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골목의 낭만 앓아간 키즈카페

다섯 살 손녀 덕분에 드디어 딸로만 듣던 키즈 카페를 직접 가보았다. 2000년대 초반 하나 둘 작은 규모로 시작된 키즈카페는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규모화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화의 길을 걷은 듯하다.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키즈카페는 빌딩 3개 층을 쓰고 있었는데, 1개 층 면적이 500평이라니 15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지만 실내 동물원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벌린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았다.

예전 입장료가 무료였던 골목에서 시간가는 줄 모른 채 뛰놀았던 세대로선, 입장료를 낸 뒤 손목에 종이 팔찌를 차고 돌아다녀야 하는 키즈카페의 문턱이 영 낯설게 느껴졌다. 3개 층을 오르내리며 보니 ‘아이 따로 어른 따로’식 공간 구획이 흥미로웠다. 일단 키즈용 놀이기구가 잔뜩 배치된 곳이 키즈카페의 중심일 텐데, 이곳에선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각자 홀로 신나게 놀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연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기 바빴고, 조금 머리 큰 녀석들은 가끔씩 또래 끼리 어울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집중팔구는 혼자 놀았다. 키즈카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곳일까 잠시 생각하노라니,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골목의 낭만과 장점을 키즈카페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웬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다. 골목은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건만, 지금은 엄마 아빠랑만 놀던가 기껏해야 엄마가 짝지워준 또래 친구들이 전부다.

그 옛날 현란한 놀이기구 하나 없어도 모래장난만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고무줄 하나만 있어도 남부럽지 않게 놀았건만, 놀이기구는 기대만큼 재미있지도 않고 급세 싫증이 나게 마련이다. 공기놀이 땅따먹기 오재미 던지기 같은 단순한 놀이들이 그토록 흥미진진했던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 함께 놀았던 친구들과 차곡차곡 쌓았던 시간의 기억 덕분 아니던가.

함인희의 우문현답

이화여대 교수
사회학



키즈 카페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또 만날 기약도 없고 함께 쌓을 추억은 더더욱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관계의 본래 모습이건만, 즉각성 일회성 만남만 남은 키즈카페의 화려한 외양 뒤로 낮가림을 극복하지 못한 미숙한 키즈들 얼굴이 오버랩된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와 가까운 친구로 지낸 요즘 세대는 또래 말고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는 순간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ندا.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절

부터 계속 또래들과

만 어울려온 데다, 집

안 사촌 간에도 대면

대면해진 상황이고 보

니 그럴 만도 하다.

소통의 중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소통 불능 세대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레 걱정이 앞선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소통의 필요성도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늘고 있음은 진정 안타깝다. 신세대 사원들만 해도 세대 쇼크에 빠진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묘안이 직장 상사를 가족관계로 치환하여, 바로 직속 상사는 부모뻘로 생각하고, 그 위 상사는 조부모뻘로 여긴다는 것이다. 별로 부딪질 일 없는 임원은 증조 할아버지(할머니는 거의 안 계시니)로 상상한다니, 생각할수록 ‘웃픈’ 이야기다.

이제 형제자매 없는 외동들이 대세를 이루는 마당에, 기왕 판이 벌어진 키즈카페가 화려한 상품화 및 세련된 상업화에만 몰두하기보다, 옛날 골목식 추억과 낭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동네친구 어울리던 어릴적 놀이터

이젠 상업시설 많아도 추억못쌓아

소통가치 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진료일정 변경’ 문자의 공포

기자는 혈액암 환자다. 2021년 1월 진단을 받았고 그해 6월 골수이식이라 불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AB형이던 혈액형은 공여자의 혈액형인 B형이 되었고, 이식 후유증인 이식편대수종병이 장과 근육, 피부, 구강으로 와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생리현상도 조절 못해 기저귀를 차고 지냈으며, 온몸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진물이 흘렀다.

그해 말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1~2주마다 외래진료를 봐야 했고, 혈소판 수혈도 받아야 했다. 기자의 집은 충북 청주지만 이 지역에는 이식센터가 없어 서울에서 이식수술을 받았다. 매주 서울을 찾아 4~5시간 대기를 하고, 1분가량의 진료를 본 후 4시간의 수혈을 받고 약을 타서 청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년 가까이 반복했다.

현재는 복직과 일상이라는 과분한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매일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으며 3개월마다 서울을 찾아 피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다. 최근까지도 외래진료를 볼때면 대기할 의자가 모자라 바닥에 가방을 깔고 앉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세상의 반은 암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기자의 담당 교수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의사들이 의사를 늘리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노트북 너머

노승길

정치경제부 기자



이유도 있다. 인기과 쏠림 현상이 커져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수가를 높여야 비인기 진료과에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혈액암 환자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래 진료 일정의 변경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글이 보인다. 우리에게 진료와 수혈, 약 수령 등은 생명과 직결된다. 실제로 의료대란 탓에 3개월 아기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해 숨지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대통령에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응에서 해결 의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의료계는 이 비정상적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noga813@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둘 다 재정보다 보장성에 무게 중심을 둔 방안이다.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어제 항변에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3안이 제시된 것은 1·2안에 비해 재정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출 효과를 내는 3안 이점을 숙지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연구회는 나아가 “(3안을 배제한)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론화위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좋은 섹트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시가 급하다.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분열돼 소란과 소음만 내고 있다. 어제 회견도 그 편린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 3안을 내놓은 연구회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3안만 믿고 공론화위의 2개 안을 틀렸다고 단정할 계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3안의 중심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해택은 기성세대가 보고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지는 잘못된 구조를 뜯어고치고, 기금 고갈의 위험을 제거하려면 지속가능성 확보에 방점을 찍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의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

하나의 가치에 매몰되는 근본주의적 접근은 금물이다. 국민 노후보장은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한 포기해서는 안 될 중대한 목표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해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면 지금 막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국민연금만 쳐다볼 일도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공부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이원화 제안 등도 검토해 폭넓게 답을 구해야 한다. 다 함께 명심할 것은 지속가능성 없는 개혁안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허, 특!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알리지옥.’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알리)라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물건을 한번 사면 계속 주문하게 된다는 신조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소셜 네트워크 및 기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행어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알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심상치 않다.

알리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단순히 초저가 공세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쏟아 내고 있다. 더욱이 또 다른 중국 유통 플랫폼인 테무(Temu)까지 합세하며, 알리와 테무 두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中 유통플랫폼, 국내시장 잠식 가속화

이러한 현상은 국내 유통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현재 유통업계 매출 1위인 쿠팡은 대대적인 로켓배송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대형마트 3사는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심본 발휘할 수 있는 신선식품 매출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중국 유통 플랫폼의 공습은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를 동반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 900억 원 정도이고 그중 중국산이 84.5%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알리나 테무 등 쇼핑앱의 국내 보급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중국 유통 플랫폼 회사는 당연히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실제 알리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고, 나아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가품 문제의 대안으로 ‘프로젝트 클린’과 ‘미스터리 쇼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 클린은 AI 기술 등이 적용된 가품 예방 시스템이고, 미스터리 쇼퍼는 전담팀에 의한 무작위 검사 및 용이한 환불 보장 등에 관한 것이다.

중국 유통플랫폼을 통한 가품 유통을 단속 및 수사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1일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대량의 유통판매자를 통한 상습적인 침해 사례가 늘 어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 단속단을 꾸려 운영한다. 특허청의 강력한 조치에 지지를 표한다.

지재권 이슈 대비 선제적 방안 찾아야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특허청은 관세청과 함께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재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 자리였다.

다만, 이러한 사후적 조치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 중국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국 유통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마케팅 정책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를 먼저 규정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아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기적요, 세상에 없던 시간

세탁시간을 잊어보세요
청소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보세요

유통기한도 전력효율도 모두
모르고 살아도 좋아요

삼성의 AI가 힘을 모으더니

집을 신경쓰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